

터키

정보수정일자: 2012. 10. 31

작성처: 이스탄불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8
- 주요 산업 동향 / 12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16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19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26
 - 대한수입규제동향 / 27
 - 관세제도 / 30
 - 주요인증제도 / 32
 - 지적재산권 / 35
 - 통관운송 / 36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39
- 외국기업 투자동향 / 41
- 우리기업 투자동향 / 45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47
- 진출형태별 절차 / 56
- 투자입지여건 / 6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62
- 조세제도 / 6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67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 68
- 물가정보 / 72
- 바이어발굴 / 74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76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79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81
- 이주정착 가이드 / 83
- 출장가이드 / 86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100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01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터키공화국 (Republic of Turkey)
위치	유럽 남동부 및 아시아 서부
면적	783,562k m ² (남한의 7.8 배)
기후	지중해성 기후(해안), 대륙성 기후(내륙)
수도	앙카라(Ankara)
인구	약 75 백만명 (2012 년 9 월 현재)
주요도시(인구)	이스탄불(1,257 만), 앙카라(447 만), 이즈밀(374 만), 브루사(244 만), 아다나(201 만)
민족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인(36 만 명), 아르메니아인(5 만 명), 소수의 유대인 등
언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98%, 수니파 다수), 기타(2%, 기독교 및 유대교)
건국(독립)일	1923 년 10 월 29 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대통령: Abdullah Gul 취임일: '07 년 8 월 (7 년 임기)
	수상: Recep Tayyip Erdogan (실권자) 취임일: '11 년 6 월 (5 년 임기)

2. 정치 사회 동향

가. 터키 정치체제

터키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이다.

현재 대통령은 2007년에 선출된 Abdullah Gul 대통령이며, 당선 당시 임기는 5년이었으나,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는 것이 확정된 바, 현재 Gul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터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기는 하나 행정부에 대한 권력에는 제한이 있다.

실제 행정부의 수장은 총리로 현재는 2011년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한 Recep Tayyip Erdogan이다. 터키의 총리는 실제 행정부 및 복수정당제의 수장으로써 활동하게 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권자로서 국가원수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 대통령: Abdullah Gul (압둘라 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1950년 10월 29일, 카이세리 ○ 최종학력: Istanbul대학 경제학 박사(1983년) ○ 주요이력: 터키 총리 역임 (2002년) ○ 재임기간: 2007년 ~ 현재
--	---

□ 총리: Recep Tayyip Erdogan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1954년 2월 26일, 이스탄불 ○ 최종학력: Marmara대학 경제학과 졸업 (1981년) ○ 주요이력: 이스탄불 주지사 역임 (1994~1997) ○ 재임기간: 2002년 ~ 현재
---	--

나. 터키 국가권력 - 행정부의 구조

터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권 분립을 통한 국가권력의 균형 및 견제를 유지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입법부는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 등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 및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부의 경우, 형식상 모든 기관의 정점은 대통령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실제 모두 총리 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터키 총리에 직속된 기관은 ‘국가종무국(Religious Affairs)’, 투자공사(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 및 참모국(Turkish General Staff)이며, 이외에는 행정부를 21개의 부로 나누어 각각의 장관들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터키 행정부 조직도



자료: 이스탄불무역관 자체조사

다. 최근이슈 - 터키 내 반미감정

최근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이자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욕하는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들의 반미감정이 연일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도 작게나마 반미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터키에서는 테러나 불매 운동 등 기타 이슬람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물리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소규모의 집회를 열어 터키주재 미국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작은 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슬람성향이 강한 터키의 현 정부 내에서도 연이은 시위로 인해 불만이 계속되자, 최근 에르도안 총리가 직접 ‘이 영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강한’ 도발이라며, ‘예언자 모하메드에 대한 모욕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이은 시위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태가 테러나 폭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터키 정부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역사적 이슈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국가’라는 말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가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 이전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와 터키는 우방국이었다. 터키는 투르크족의 후예이며, 투르크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접한 ‘돌궐’의 다른 발음이다. 돌궐(투르크)족은 본래 북아시아에 뿌리를 둔 유목민족이었으며, 당나라에 밀려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기까지 고구려와 형제의 국가로 지냈다고 전해진다. ‘형제의 국가’의 기원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1900년대 터키공화국이 수립되면서도 형제의 국가로써 터키와 한국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터키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두고 형제의 국가를 말하게 되는 데 첫 번째가 한국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1만 5000명의 군사를 파병했다. 물론, 정치 및 외교적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일부 사실인 부분이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형제의 나라’ 한국에 대한 예의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터키 사람들은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 2002년 당시 한국과의 3·4위전에서 우리 국민들이 터키를 응원하는 모습은 터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비즈니스 석상에서도 이 이야기가 오갈 만큼 크게 인식되어 있다.



나. 최근 이슈

1) 한-터키 FTA

최근 양 국간 가장 큰 이슈는 한-터키 FTA로 2010년부터 시작된 이번 FTA는 지난 8월 1일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분야는 기본협정 및 상품분야이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양국 국회의 비준은 양국 모두 올 해 내에 완료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선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비스 / 투자 그리고 그 밖의 협정(정부조달 포함)은 상품분야 발효 후 1년 내에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FTA체결로 인하여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약 100%)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될 것이며, 우리 측은 99.6%, 터키는 100% 철폐할 방침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0% 철폐될 예정이다.

한·터키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0	2,064	53.8
3년	200	1.7	14.4	4.0	350	2.9	338	8.8
5년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형					4	0.0	169	4.4
7년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년	609	5.1	18.8	5.2	801	6.6	1.7	0.0
(10년내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0
관세감축(RD)	134	1.1	0.2	0.1	175	1.4	0.0	0.0
양허제외	795	6.7	1.2	0.3	1,060	8.8	0.2	0.0
E(standstill)	599	5.0	1.1	0.3	748	6.2	0.1	0.0
standstill배제	180	1.5	0.0	0.0	312	2.6	0.0	0.0
R	16	0.1	0.0	0.0				
총합계	11,881	100.0	359	100.0	12,102	100.0	3,837	100.0

주: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

한편, 이번 FTA 체결로 인하여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이며 터키의 경우, 농수산물 등의 식품분야와 의류 등의 섬유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터키 제 2 원자력 발전소 건설

터키 시놉 원전 프로젝트 (200억불 규모)가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렬된 후, 터키 정부는 일본(도시바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현지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협상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전하며, 일본과의 원전 추진을 기정사실화 해 왔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및 조건 등으로 인해 일본과의 원전협상 또한 결렬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올 해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의 원전협상이 재개되어 진행 중에 있다.

양국 간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공단가 및 전기요금 단가 부분으로 가격부분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며, 양국 모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한편, 터키 정부는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등)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에 진전이 없어 올 연말까지는 모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여 경쟁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으나, 중국이나 일본 등이 손해를 감수하고 뛰어 들지 않는 이상, 기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수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 원전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 터키 제 2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Sinop Nuclear Power Plant Project) ○ 위치: 터키 북부 시놉 (Sinop) ○ 규모: 약 200억달러 (총 4기) ○ 프로젝트 내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관 (거시 경제 지표)

터키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변화 추이

경제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성장률(%)	0.7	-4.8	9.2	8.5	v3.3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6.5	8.5	10.4	9.7 (8월 현재)
1인당 GDP(달러)	10,436	8,475	10,206	10,444	v10,973
수출(FOB, 십억달러)	132,003	102,135	113,883	134,954	87.2 (1-7월)
수입(CIF, 십억달러)	201,823	140,919	185,544	240,833	137.9 (1-7월)

주: v는 전망치

자료: 터키 중앙은행, 터키 경제부, 대외무역청, 통계청

□ 경제성장률

터키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던 지난 2009년 -4.7%를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최근 2년간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연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올 해 경제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PPI 기준)은 2011년에도 목표였던 한 자리 수를 넘어선 10.4%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올 해 8월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9.7%로 나타나 간신히 한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 연말에는 지난 해와 비슷한 1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인당 GDP

1인당 GDP는 2010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올 연말에는 11,000 달러에 가까운 10,973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에는 12,000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수출입

올 7월까지 수출입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은 약 872억 달러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12.7%가 상승, 수입은 2.1% 감소한 1,379억 달러를 기록 중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해 사상 최대인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무역수지 적자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가 감소한 507억 달러를 기록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나. 주요 경제정책

터키 정부는 현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구하고 동시에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경제안정의 측면에서는 물가상승률 억제정책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터키 중장기 경제개발계획(~'20년)

터키는 우선 2007년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중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중점추진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1년 경제위기 이후, IMF로부터 금융구제를 받은 경험이 있어 거시경제지표 안정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는 이러한 경제개발계획 내에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점추진과제에는 건설(인프라), IT(자동화 및 전자정부)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교통 인프라 개선의 경우, 발전소, 송유관 건설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확산 및 자동화 도입 등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프로젝트, e-Learning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터키 경제개발계획 중점추진과제(요약)

- 에너지·교통 인프라개선
- 정보통신기술 확산 및 자동화 도입
-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개선 및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간의 연계성 제고
- 낙후지역 개발 및 공공투자 개선
- 전자정부 효율성 및 서비스 확대

자료: 터키 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07)

□ 터키 수출확대 정책(~'23년)

수출확대 및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2009년부터 터키 재무성과 수출입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출확대 정책의 주요목표는 2023년까지 연간 수출 5조원을 달성(매년 12%의 수출증대)및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내 진입(전 세계경제의 1.5%)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형시키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터키 수출확대전략 중점추진사항(요약)

- R&D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경쟁력 확보
- 운송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 허브로의 도약
- 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투자확대를 통한 자국 브랜드의 세계화

자료: 터키 경제부

□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

한편, 터키 중앙은행은 늘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터키정부는 매년 한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터키 경제는 2004년~2007년 간, 4년 간 한자리수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다시 10%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연 평균 10.4%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좋지않은 않다.

□ 기타

터키는 2001년 경제 위기 이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던 관계로 IMF 구제금융 상환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을 기준으로 IMF 구제금융은 모두 상환하였다.

한편, 구제 금융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IMF가 제시한 지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IMF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세제 개혁, 은행 감독기구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터키 정부는 이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터키의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주변국들의 경제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력 수출시장인 유럽지역은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최근 민주화 열풍 및 시리아 소요사태, 이란의 핵개발 파문 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국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터키 경제는 나름 꾸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전망되어 지난 2년간의 8%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겠으나, 유럽지역의 마이너스 또는 0% 대의 성장을 미국의 1~2% 대의 성장을 전망에 비해서는 높은 성장률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출시장 다각화 및 꾸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터키 정부에서도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터키 정부의 경제전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	3.3	-	-
GDP(십억달러, Current Price)	822	888	952
1인당 GDP	10,973	11,716	12,412
실질 GDP 성장률	4.0	5.0	5.0
실업률	10.4	10.2	9.9
수출 (십억달러)	148.5	165.7	185.1
수입 (십억달러)	248.7	272.5	295.9

주: 경제성장률은 OECD 기준

자료: 터키 경제부, 통계청, OECD

아울러,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추이 또한 경제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2년 7월 현재 무역수지 적자는 약 507억 달러를 기록, 지난 해 동기대비 20%가 감소하는 등 그 동안 터키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율상 20%의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높은 금액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의 유지 또는 반등이 2012년 터키 경제 성패의 큰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요

터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균형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은 69%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한편, 2011년과 올해 6월까지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약 71%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6월까지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광업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타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1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동산(17.2%), 교통·통신(15.5%), 그리고 물류(14.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GDP 산업별 비중 변동 추이

(단위: %)

산업분야	산업별 비중		
	2010년	2011년	2012년(6월)
1. 농·목축·수산업	9.4	7.3	6.0
2. 제조업	21.5	21.4	22.5
- 광업	1.6	1.4	1.4
- 에너지	2.6	2.3	2.2
- 기타 제조업	17.3	17.7	18.9
3. 서비스업	69.1	71.3	71.5
- 건설	4.6	4.7	5.1
- 물류	15.2	12.2	14.0
- 교통·통신	14.9	14.7	15.5
- 금융	4.2	3.3	3.4
- 부동산	22.6	16.4	17.2
- 교육	3.7	3.5	4.3
- 기타 서비스업	3.9	16.5	12.0

자료: 터키 경제부, IMF

나. 자동차 및 부품

터키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중 하나이다.

지난 해 터키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약 130억 달러를 기록하여, 단일 산업분야로써는 가장 큰 금액의 수출을 기록한 분야였으나, 올 7월까지의 생산과 수출은 지난 해 동기대비 생산과 수출 모두 9%이상 감소하는 등 재정위기의 여파를 크게 실감하고 있다.

터키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1-7월)
수출	910,270	628,970	754,469	790,966	496,438(-9.9%)
생산	1,147,110	869,605	1,094,557	1,189,131	657,423(-9.5%)
수출비중	79%	72%	68.9%	66.5%	75.5%

자료: 터키 자동차협회(OSD)

올 7월까지 브랜드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총 17개의 자동차 메이커 중 르노社가 약 18만대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포드社가 16만대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인 현대가 5만 2천대를 기록하여 4위인 도요타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체 5위를 기록 중에 있다.

한편, 차종별 생산량은 승용차가 32만대로 전체의 약 50%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픽업(29만대, 44%), 트럭(2.7%)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르노社가 약 12만 대를 수출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나타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4만대, 픽업이 18만대를 기록하여 생산과 같이 1위, 2위를 기록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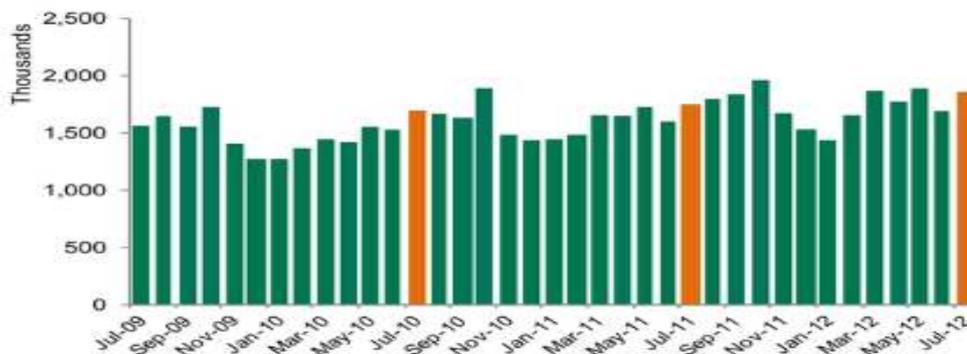
다. 전자제품(백색가전)

터키의 전기·전자산업, 특히 백색가전분야는 200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과 함께 터키의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은 유럽시장으로 자동차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지역의 생산기지역할을 하고 있다.

터키의 전기·전자제품은 백색가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백색가전 주요 6개 품목(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드라이기, 오븐)의 경우에는 2011년 연간 생산량 기준 유럽지역 및 인근지역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올 해 7월까지의 백색가전 생산대수는 총 185만대를 기록, 전년 동기의 175만대에 비해 14.5%나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터키 백색가전 생산추이



자료: 백색가전협회

또한 수출이 올 7월까지 총 137만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4% 가량 증가한 반면, 내수판매는 57만대로 1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TV, 컴퓨터 등 흑색가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핵심기술 부족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수입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남아있다.

라. 섬유

섬유산업은 최근 글로벌 마켓에서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산업이나 2011년 기준 터키 전체 수출의 6.2%를 차지하는 터키의 주요산업 중 하나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터키의 발달된 패션 감각과 봉제기술을 바탕으로 약 40,000만 개의 기업이 있으며,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약 2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터키정부의 섬유산업 보호 및 개발노력으로 인하여 브랜드화, 고급 의류생산을 중심으로 업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터키 섬유산업은 수출이 2011년 기준 총 1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10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나, 올 해 6월까지의 주력 시장인 유럽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입 모두 약 5%이상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터키 섬유 수출입 동향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1년(1-6월까지)	2012년(1-6월까지)
수출	9.49	11.50	4.09	3.92
수입	9.44	10.83	3.70	3.30

자료: 터키 경제부

마. 관광

터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로마제국 및 오스만제국 등의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의 보고로 관광산업은 예로부터 국가의 주요산업 중 하나로 발전해 왔다.

2010년 기준, 터키 관광객은 약 2,800만 명을 기록, 관광수입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은 또 다시 크게 늘어 3,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 해 6월까지의 관광객 수는 12백만 명을 기록 중으로 지난 해 대비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터키 관광객 수가 그 동안 7~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는 양상을 보이는 바 3분기 집계 발표되면 올 해 관광산업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변화 추이

(단위: 명,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1-6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28,632,204	31,456,076	12,723,978
관광수입	20,806	23,020	8,375

자료: 터키 문화관광부, 통계청

바. 건설업

터키의 건설업은 토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터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4~6%에 이르는 터키의 주력산업 중 하나이다.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중동사태 등 국제사회의 불안으로 인해 해외프로젝트 수주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들 사태가 안정될 경우 터키의 프로젝트 수주규모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터키 해외프로젝트 수주 추이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1-8월까지)
프로젝트	477	573	455	151
수주규모	21,418	22,289	18,511	14,975

자료: 터키 경제부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관세동맹

터키는 1996년 1월 1일 이후로 EU와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인증 등 수출입 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EU국가들과의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EU와 터키 간 수출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FTA

터키는 EU의 관세동맹 외에도 1991년 이후 FTA를 통한 수출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FTA를 체결 중에 있다.

터키 FTA 체결현황('12.9월 현재)

구분	국가(지역)	연도	비고
1	EFTA	1991	완료
2	이스라엘	1996	완료
3	마케도니아	1999	완료
4	크로아티아	2002	완료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2	완료
6	팔레스타인	2004	완료
7	튀니지	2004	완료
8	모로코	2004	완료
9	시리아	2004	완료
10	이집트	2005	완료
11	알바니아	2008	완료
12	조지아	2008	완료
13	몬테네그로	2010	완료
14	세르비아	2010	완료
15	칠레	2011	완료
16	요르단	2011	완료
17	대한민국	2012	체결완료, 비준대기
18	레바논	-	진행 중
19	모리셔스	-	진행 중

자료: 터키 경제부

터키는 2012년 9월 현재, 1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레바논, 모리셔스 2개국과 협상 중에 있다.

한편, 터키의 FTA 체결 대상을 살펴보면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 인근국가들과의 체결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 남미의 칠레를 시작으로 올 해 아시아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점차 그 지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 FTA 체결국 분포도('12.9월 현재)



자료: 이스탄불무역관 자체제작

다. 기타

□ 이슬람 개발도상국 8개국 회의 (Developing Eight(D-8))

터키는 이슬람 국가 간의 경제협력확대를 목적으로 국가 간 경제무역협력기구 창설을 선언하고 1997년 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D-8 각료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97년 3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고위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여국가는 터키,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8개국이다.

□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O)

1964년 터키·이란·파키스탄 3개국이 지역협력개발기구(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RCD)로 창설하여 1984년 ECO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2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추가로 가입시켜 지금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들 10개국은 1993년 이스탄불 선언에서 무역개발은행 창설 등 8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2000년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나, 자원부족 및 회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추후 2000년 3월 6일 ECO 무역기본협정이 체결되었고, 2003년 7월 17일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터키 4개국 간 ECO 무역협정(ECOTA)이 서명되었다.

□ 흑해 경제 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흑해연안국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92년에 결성되어, 이스탄불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터키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나 러시아, 그리스 등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활동은 현재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회원국은 터키,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총 12개국이다.

III. 무역

1. 수출입 동향

가. 개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터키의 수출입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 올 7월까지의 수출은 약 872억 달러를 기록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7%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1,37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가 감소하면서 그 동안 터키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던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해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며 큰 우려를 자아냈던 무역수지적자가 최근의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수출 증가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시장 다각화 노력과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 노력 및 투자로 인한 원자재·부품 수입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터키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십억,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7월)
수출 (증감률)	132 (23.1)	102.1 (-22.6)	113.9 (11.5)	134.9 (18.2)	87.2(12.7)
수입 (증감률)	201.8 (18.7)	140.8 (-30.3)	185.4 (31.6)	240.8 (29.8)	137.9(-2.1)
무역수지 (증감률)	-69.8 (11.2)	-38.7 (-44.6)	-71.5 (84.5)	-105.9 (67.5)	-50.7(-20)

주: 2012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자료: 터키 경제부, 통계청

나. 지역·국가별 수출입 동향

앞서 언급했듯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각화 노력 덕분이었다.

그 동안 터키의 수출은 對 EU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지금도 그 비중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최대 60% 가까이 되었던 것에 비해 현재의 30~40%는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지역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EU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지역이 29.1%로 뒤를 이었으나, 7월까지의 수출실적은 EU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38.7%,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34.5%를 기록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 유럽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출증감률에서도 아시아지역 41.9%, 아프리카지역 39.2% 등 EU국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수출시장 다각화 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터키 1-7월 지역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1-7월)	2012(1-7월)	증감률	비중
EU(27개국)	37,226	33,831	-9.1	38.7
기타 유럽	7,031	7,752	10.3	8.8
아프리카	5,683	7,911	39.2	9.0
미주	4,521	5,787	28	6.6
아시아	21,250	30,161	41.9	34.5
오세아니아	261	272	4.3	0.3
기타	1,477	1,499	1.5	1.7
합계	77,448	87,212	12.6	100

주: 비중은 2012년 기준

자료: 터키 경제부, 통계청

지역별 수입실적 또한 EU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7월 현재 對 EU지역 수입은 전체 수입의 36.5%로 거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對 아시아지역은 30.7%로 그 동안 20%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수출과 수입 통계 모두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무역이 상당히 활발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터키 1-7월 지역별 수입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1-7월)	2012(1-7월)	증감률	비중
EU(27개국)	54,472	50,350	-7.6	36.5
기타 유럽	19,608	22,358	14.0	16.2
아프리카	3,665	3,420	-6.7	2.4
미주	13,639	12,272	-10.0	8.8
아시아	43,357	42,413	-2.2	30.7
오세아니아	361	530	46.6	0.3
기타	5,693	6,569	13.4	4.7
합계	140,796	137,912	-2.0	100

주: 비중은 2012년 기준

자료: 터키 경제부, 통계청

국가별 수출실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터키의 對 수출실적 1위를 차지했던 독일이 8.8%를 기록, 2위로 내려앉았으며, 이란이 9.2%로 최근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계기로 우호국인 터키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터키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1-7월)

(단위: %)

수출	비중
이란	9.2
독일	8.8
이라크	6.8
영국	5.5
러시아	4.3

자료: 터키 경제부, 통계청

수입	비중
러시아	11
중국	8.9
독일	8.8
미국	6.4
이탈리아	5.6

자료: 터키 경제부, 통계청

다. 품목별 수출입 동향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류, 석유류(주로 의류) 등이었으며, 이러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 부진 또는 저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EU시장의 재정위기로 말미암아 수출이 약 3.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키의 제 1위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다수의 주요품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 5% 내외의 낮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대 품목 안에 자리해 있다.

한편, 주목할 만 한 점은 지난 1분기 처음으로 10대 수출품목에 자리한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이 강세를 이어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으며, 올 해 1-7월까지 약 88억 달러가 수출되어 전년 동기의 18억 달러의 4배 가까이 수출이 증가하여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터키의 10대 수출품목 (1-7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수출금액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9,127	-3.9
2	보석 및 귀금속 류	8,856	371.7
3	철, 철강	6,848	3.3
4	기계 및 기계 부품	6,917	4.8
5	전기·전자제품	5,416	15.5
6	의류(니트)	4,840	-4.8
7	광물성연료	4,277	14.2
8	철강제품	3,421	4.4
9	의류(니트 제외)	3,198	3.9
10	플라스틱제품	2,883	8.9

자료: 터키 대외무역청

터키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기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이다. 우선, 광물성 연료의 경우에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수입이 터키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나머지 주요 수입 품목들은 수출 품목들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터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원자재 및 핵심부품의 수입이 많기 때문이며, 이에 터키에서는 관련 제품들을 수입해 다른 국가에 재수출하거나, 원자재 및 부품 등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수출하기 때문이다.

1-7월까지의 주요 수입품목들은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줄은 가운데 수출과 마찬가지로 보석 및 귀금속 류의 수출이 97.6% 증가한 것이 눈에 띄며, 광물성 연료 또한 13.3%의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터키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10대 수입품목 (1-7월)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수입금액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1	광물성 연료	33,783	13.3
2	기계 및 기계부품	15,012	-7.4
3	철, 철강	11,846	1.6
4	전기·전자제품	9,339	-3.4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8,039	-21.2
6	플라스틱제품	7,447	-4.1
7	보석 및 귀금속 류	6,125	97.6
8	유기화학제품	3,028	-11.9
9	광학기기 및 의료기	2,325	-3.5
10	항공기 및 부품	2,250	-17.0

자료: 터키 대외무역청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요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 이후로 교역량이 꾸준히 늘어, 2011년에는 對 터키 수출이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양 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유럽재정위기의 여파가 터키 경제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자 터키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약 2% 가량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월까지 對 터키 수출이 10.9%가 감소해 전체적인 수입의 감소폭에 비해서도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8월까지의 對 터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3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은 약 5억 달러를 기록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터키 교역의 특징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으로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우리의 무역수지는 흑자폭을 키워왔었다. 지난 2010년에는 32억 달러, 2011년에는 4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던 무역수지 흑자는 올 해는 약 30억 달러 초반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對 터키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1-8월)
수 출	3,773 (7.7)	2,661 (29.5)	3,753 (41.1)	5,085 (35.5)	3,089 (-10.9)
수 입	362 (28.5)	434 (20)	516 (18.8)	804 (55.8)	495 (-8.3)
무역수지	3,411	2,227	3,237	4,281	2,594
총교역액	4,135	3,095	4,269	5,889	3,584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품목별 수출입 동향

품목별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10대 품목 중 우리나라의 對 터키 수출은 평판디스플레이와 철도차량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승용차(39.2%), 합성수지(16.8%), 합성고무(33.7%) 등의 품목에서의 수출약세가 對 터키 수출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對 터키 수입실적은 석유제품 및 철강의 수입이 5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에 대한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실적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터키, 10대 교역품목(1-8월)

(단위: 백만 달러, %)

수출품목	금액	증가율	수입품목	금액	증가율
합성수지	267	-16.8	기타 석유제품	226	97.6
승용차	250	-39.2	자동차부품	50	-57.5
자동차부품	214	-8.3	직물제의류	20	28.7
건설중장비	211	-1.7	편직제의류	13	-4.0
선박	177	-10.0	나프타	11	-84.2
평판디스플레이	128	59.7	기타 정밀화학원료	10	17.3
기타 플라스틱제품	94	-5.4	기타 비금속광물	10	-3.4
합성고무	74	-33.7	가죽제 가방	9	9.4
냉연강판	72	-13.5	철강 및 비 합금	8	52.9
철도차량	71	344.7	기타 정밀화학제품	5	-0.6
소 계	1,558	27.5	소 계	362	2.1
전 체	3,098	-10.9	전 체	496	-8.3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터키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로 반덤핑 관세부과, 세이프(SG) 등을 다수 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세이프가드(SG) 조치 부과는 세계 1위 국가로 수입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나. 반덤핑 관세

2012년 8월 기준, 터키의 반덤핑 관세 부과 케이스는 총 117건으로 21개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이 총 34개로 가장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규제대상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최근 터키 정부는 신규로 16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한국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부과 케이스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세이프가드 (SG)

터키는 對 한국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세계 제 1위 국가이며, 최근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들을 연장 또는 강화하였다. 2012년 8월 현재 총 15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에 있으며 1건이 임시조치로 취해져 있다.

한편, 대부분의 조치들이 전 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란의 경우에는 이란만을 특정하여 발동된 건이 4건이나 될 만큼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섬유분야에서는 EU와 FTA 체결국 들에게는 예외를 두어 적용하지 않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반덤핑 관세

2012년 8월 기준, 터키의 반덤핑 관세 부과 케이스는 총 117건으로 21개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006~2008년부터 총 3 종류의 한국산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터키 정부는 신규로 16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한국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부과 케이스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對 한국 반덤핑 관세부과 현황 (2012년 8월 현재)

품목	HS코드	최종판정	부과내역
합성 필라멘트사직물	5407	2008.08.01	14.64%~40%
금속드리사	5605	2010.07.21	2.2\$/Kg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503.20	2012.05.16	6.2%

자료: 터키 경제부

나. 세이프가드 (SG)

터키는 對 한국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세계 제 1위 국가이며, 최근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들을 연장 또는 강화하여, 한국에는 현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을 특정하여 부과한 것이 아닌 전 세계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만을 특정하여 부과한 건은 현재 없다.

對 한국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2012년 8월 현재)

품목	HS코드	부과내역		
		1차	2차	3차
청소기	8508.11 8508.19	34\$/unit 10/8/2009-9/8/2010	33\$/unit 10/8/2010-9/8/2011	32\$/unit 10/8/2011-9/8/2012
스팀다리미	8516.40	3.5\$/unit 10/8/2009-9/8/2010	3.25\$/unit 10/8/2010-9/8/2011	3\$/unit 10/8/2011-9/8/2012
신발	6402	1.70\$/pair 10/8/2009-9/8/2010	1.65\$/pair 10/8/2010-9/8/2011	1.60\$/pair 10/8/2011-9/8/2012
신발	6403	2.55\$/pair 10/8/2009-9/8/2010	2.50\$/pair 10/8/2010-9/8/2011)	2.45\$/pair 10/8/2011-9/8/2012
신발	6404	1.70\$/pair 10/8/2009-9/8/2010	1.65\$/pair 10/8/2010-9/8/2011	1.60\$/pair 10/8/2011-9/8/2012
모터사이클	8711.10	155-240\$/unit 15/8/2012-14/8/2013	150-235\$/unit 15/8/2013-14/8/2014	145-230\$/unit 15/8/2014-14/8/2015
안경프레임	9033.11 9033.19	2.55\$/unit 5/3/2011-4/3/2012	2.40\$/unit 5/3/2012-4/3/2013	2.25\$/unit 5/3/2013-4/3/2014
가방	42.02	2.70\$/kg max 4.25 \$/unit 8/4/2011-7/4/2012	2.60\$/kg max 4.00\$/unit 8/4/2012-7/4/2013	2.50\$/kg max 3.75\$/unit 8/4/2013-7/4/2014
전자제품 (일부)	8509.40 8509.80 8516.31 8508.11	3.75-5.70\$/unit 1/11/2011-31/10/2012	3.5-40\$/unit 1/11/2012-31/10/2013	-
면사	5205	10% max 0.85\$/kg min 0.29\$/kg 15/7/2011-14/7/201 2	9% max 0.80\$/kg min 0.26\$/kg 15/7/2012-14/7/201 3	8% max 0.75\$/kg min 0.23 \$/kg 15/7/2013-14/7/201 4
(신규) 성냥	3605	1\$/netkg max..3.10 \$/kg 6/6/2012-5/6/2013	0.95\$/netkg max..3.05 \$/kg (6/6/2013-5/6/2014)	0.90\$/netkg max..3\$/kg (6/6/2014-5/6/2015)
(신규) PET	3907.60.2 0	8 CIF %	7,5 CIF%	7 CIF %

자료: 터키 경제부

한편, 최근 타결된 한-터키 FTA협정에 따르면 양자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조치 발동 관련 절차적·실질적 요건 강화로 우리 기 체결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확보함으로써 향후 일련의 조치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터키 FTA체결에 따른 무역규제 적용방식

구분	한·터키 FTA 주요 내용	한·EU FTA와의 비교 (한·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최대 3년 (2+1년 연장가능)	한·EU FTA plus (2년+2년 연장)
	조치존속기간을 협정발효 후 10년	한·EU FTA plus (관세철폐후 10년까지)
	동일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금지	한·EU FTA plus(미도입)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계산에서 제로잉 금지	한·EU FTA plus(미도입)
	반덤핑/상계관세 최소부과	한·EU FTA와 동일
	반덤핑조사개시 사전통보 (15일)	한·EU FTA와 동일
	재심 종료 후 반덤핑조사 요건강화	한·EU FTA와 동일
	원심적용 미소기준을 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EU FTA와 동일

자료: 외교통상부

5. 관세제도

가. 개요

터키는 1996년 1월 1일부터 EU와 관세 동맹을 발효하여 양 국가 사이에는 약 93%의 교역 상품이 관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제3국에 대해서는 EU와 터키의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터키 역시 관세를 통한 수입 억제 조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 동맹 체결 시 제3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EU 기준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터키는 1996년 5.8%에서 2000년 5%로 평균 관세율을 조정해 왔고 2005년 이후에는 EU 기준인 4.2%로 평균 관세율을 재조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그리고 일부 민감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관세율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나. 품목별 관세제도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현재 터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농산물의 경우 42.2%, 농업 부문에 있어서 특히 높은 관세율로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낙농 부문에서 터키 내 비중이 높은 도축용의 양, 염소 등이며 135%의 높은 관세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비중이 적은 돼지에도 225%의 높은 관세율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낙농품 제품들도 20~1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이다.

또한, 견과류(140%), 식용채소(19.5~49.5%) 등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이다.

한편, 식용 과일의 경우에는 파인애플(145.8)과 사과(43.2%) 등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그 밖의 과일은 평균 19.3~86.4%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공 식품인 커피(13%), 차(145%), 향신료(30%)도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곡물 중 쌀(12~45%), 밀(40~130%), 보리(85%), 옥수수(130%), 수수 및 메밀(40~50%)과 곡물 가루(40.5~54%) 등이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다.

2) 공산품

공산품 부문에 있어서는 의류(12%), 신발(8~17%), 유리제품(11%), 철과 비합금강(22.4%), 승용자동차(10~16%), 중고차(22%) 등이 민감 품목으로 높은 관세로 보호를 받고 있다.

다. 국가별 관세제도

터키 관세법은 2003년 10월 관세법을 EU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04년 개정을 마쳤고, EU의 제 3국에 대한 관세제도를 수용하면서 터키와의 관계 또는 개발 정도 기준으로 5가지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터키 관세율표상 국가군

분류	내용
(1) AB, EFTA, ISR, TUN, FAS, MAK, HIR, B-HER, B.S., Gaz. Ser.	무역협정 체결국
(2) E.A.G.U.	최저개발도상국
(3) O.T.D.U.	특별 인센티브부여국
(4) G.Y.U.	개발도상국
(5) D.U.	기타 국가 (한국포함)

자료: 터키 관세청

1군은 EU, EFTA 등 관세동맹 또는 FTA 등 무역협정체결국이 속해 있으며, 2군은 마케도니아 등 최저개발도상국, 3군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특별 인센티브 부여국, 4군은 개발도상국, 5군은 기타국가로 분류된다.

1군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보통 0%이며 5군의 적용 관세율이 가장 높다.

한편, 한국은 현재 기타국가로 구분 5군에 속해있으나, 최근 FTA체결로 인하여 2013년도부터 1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예외적 조치

한편,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사람, 동물 및 식물의 건강보호,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보(Communiqués)를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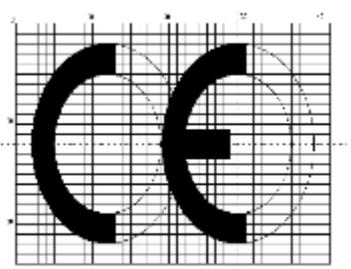
이러한 규정의 별도 적용을 받게 되는 품목들로는 터키에서의 국제 박람회 참가, 전쟁 무기, 방사능 물질, 일부 통신 장비, 지도, 사후 유지 보수 서비스 보증 하의 수입, Route 보증 하의 자동차 수입,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의 수입, 5년 미만 중고 제품의 수입, 폭발물, 솔벤트 및 석유 화학 제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제품, 오존층 훼손 물질, 일부 염색 제품, 비료, 화학무기 통제 협정에 수록된 제품 그리고 수입관세 징수 유예 품목 및 징수 유예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다.

6. 주요 인증제도

가. CE인증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동 조치는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CE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 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 머리글자를 딴 마크 ○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 ○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의무 부착
---	---

나. TSE인증

TSE 인증은 한국의 KS 마크와 같은 성격의 인증으로 터키 경제부 산하 터키 표준협회(Turkey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의 종류이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CE인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CE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TSE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CE인증이 없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TSE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는 CE인증 획득절차와 매우 유사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TSE인증은 CE에 비해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TSE 인증은 수출업체가 미리 받을 필요는 없고, 통관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TSE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이 완료된 후에만 수입업체에서 물건을 통관시킬 수 있다.

TSE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통상산업부 산하 터키 표준협회 (Turkey Standards Institution) 인증 ○ CE인증이 없는 경우, 터키 내 수입을 위해 획득이 의무화된 인증 ○ TSE 인증 상세정보: http://global.tse.org.tr/
---	---

다. 기타

CE인증 및 TSE인증 외에도 다음 품목들은 수입 시 터키 경제부(소비자 및 경쟁보호 관리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Guarantee bond)를 통관절차과정에서 세관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보증서 취득필요 품목

HS코드	품목
7321	철강제의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 포함).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8403.10	중앙난방 보일러(화석 연료 사용)
8414.51.00.20.00 8414.59.20.20.00 8414.59.40.20.00 8414.59.80.20.13,14	팬
8414.60.0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cm 이하인 것)
8414.80.80.20.00	단지, 가정용, 팬이 부착된 필터용 환기후드
8415	공기조절기 (동력 구동식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 습도만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 8415.90은 제외)
8418.21 8418.22.00.00.00 8418.29	단지, 가정용 냉장/냉동고
8419.11.00.00.00	가스가열식인 물가열기
8421.12	의류탈수기
8422.11.00.00.00	가정용 식기세척기
8429	자주식의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레벨러, 토양을 정돈시키는 기계, 스크레이퍼, 메카니컬셔블, 엑스카베이터, 셔블로우더,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33.61.00.00.00	조란, 과실 기타 농산물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
8450.11 8450.12.00.00.00 8450.19	가정용 세탁기

HS코드	품목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로서 드릴링, 볼링, 밀링, 나선가공 또는 탭핑용으로 사용되는 것 (웨이타입 유니트헤드머신을 포함, 8458 제외)
8460	디버어링, 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랩핑, 폴리싱 또는 기타 완성가공용 공작 기계로서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것 (8461 제외)
8470.50	금전등록기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71.80 / 8471.90 제외)
8502	전기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4.40.90.90.11	전기 정류기
8509.10	전기 진공청소기(건식 및 습식 모두 포함)
8509.30.00.00.00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셋이 있는 유선 전화기 및 방송 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 및 영상 전화기 (8517.90 제외)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8525.20.20.00.11	수신기기를 갖춘 무선 송신기기
8525.20.20.00.12	수신기기를 갖춘 모빌링 무선 송신기기

자료: 터키 대외무역청

위생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과 접촉하는 생활 소비품의 경우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한다. 테스트는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시행한다.

한편, 제품 종류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관리증명서 취득필요 품목

- 환경청: 자연환경보호 관련한 제품
- 원자력부: 방사능 관련 제품
- 교통부: 경비행기 관련 제품
- 내무부: 폭발물 관련 제품
- 에너지부: 석유 및 원유관련 제품
- 노동사회안전부: 건강 및 안전관련 제품
- 농림부: 비료관련 제품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터키의 산업재산권 역사는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당시에는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였으나 시대 흐름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진성을 면치 못한 바 있다.

터키 정부는 1995년 6월 특별법을 제정하여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이에 앞서 터키 정부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행정 절차 시행을 위해 1994년 6월 24일 터키 특허청(Turkish Patent Institute)을 설립한 바 있다.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터키 정부는 2개의 법률, 6개의 시행 법률, 2개의 시행령과 5개의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지적 재산권 법률을 대폭 정비하였다.

나. 특허법

1995년 6월 27일 공포된 새 특허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발명 특허를 허가하며 보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20년이다. 의약품 및 제조에 관한 특허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용실안(Utility Model - 특허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독창성이 결여된 발명)에 대한 보호는 10년이며, 실용실안의 하위 단계는 7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 산업 디자인법

산업 디자인은 5년간 보호 받는 것이 원칙이나 4회의 갱신을 통해 최장 25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동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라. 원산지 증명법

동 법률은 천연자원, 농산물, 광물, 산업제품 및 공예품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 지역적 표시로 정의된다. 동 법률에 따라 제품이 원산지 증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장소, 지역, 때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 증명 必
- 제품의 품질, 특성이 지역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 증명 必
- 제품, 생산, 생산 과정이 지역적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必

마. 상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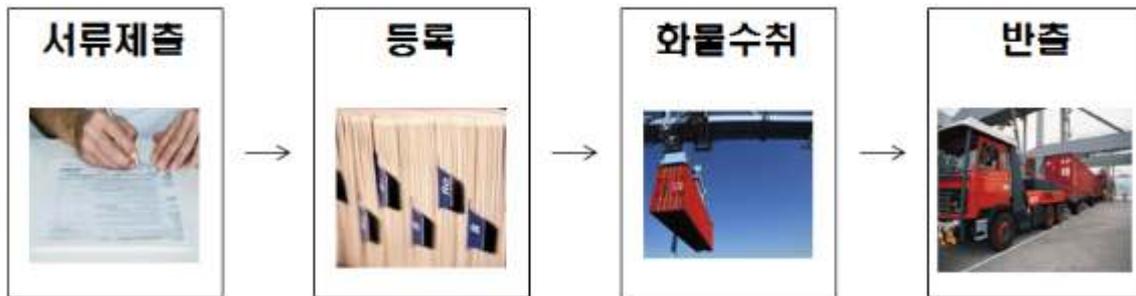
상표(Trademark), 서비스 표시(Service mark), 보증 및 집단 표시(Guarantee & Collective mark)가 보호되고 있다.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갱신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재산권 피해 사례는 대부분 터키 기업이 한국 회사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절차

컨테이너 도착 시 화물 소유주(수입자)는 3가지 종류(A: Entry, B: 신고인, C: Exit)의 컨테이너 등록 서류(Entry Voucher)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 등록 절차 및 등록 서류 번호 부여가 끝난 후 화물 소유주는 B(신고인) 및 C(Exit) 서류를 돌려받는다.

통관절차 흐름도



등록된 컨테이너는 서류에 등록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출되어야 하며 만약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화물 소유주는 만료일 이전에 세관에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나. 수입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Bill of Landing(endorsed by the importer)
- Cargo Manifest
- Certificate of Origin
- Commercial Invoice
- Consular Invoice
- Customs Cargo Declaration Form
- Customs Transit Document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 Import License
- 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 Ship Arrival Notice
-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 Sales Confirmation Contract
- Certificate of ownership
- Export License for Quota
- Packing List
- Insurance Policy
- CE Certificate
- TSE Certificate or Guarantee bond (품목별 상이)

수입신고 시,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터키에서는 대부분 수입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 통관 소요 기간

- 세관 신고 및 검사: 약 2-3일
- 항구 및 터미널 통관: 약 3-4일
- 총 소요 기간: 약 5-7일

라. 컨테이너 비용 및 한국-터키 간 운송 소요 기간

- 비용: 컨테이너당 8,500~10,000달러
- 소요 기간: 35~55일 (평균 40~45일)

마.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검사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4가지(통상 무작위)로 분류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물품검사 구분>



통상 RED LINE(화물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빠른 검사), GREEN LINE(검사 없음)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RED에서 GREEN으로 갈수록 검사가 단순해지거나 그냥 통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작위로 분류하나 화학제품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한 품목들은 대개 RED LINE으로 분류되며, 또한 기존에 물품검사 시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이후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RED LINE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쿼터 품목의 경우에는 실제 중량과 서류상의 중량이 일치하는지 까다롭게 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고 기계 통관 시에는 기계 내용 연수가 터키에서 법률로 정한 일정 기간을

초과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며 제작 기한이 넘은 중고 기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일부 의료용품 및 전기용품은 터키 보건부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반입 허가서를 물품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수입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면 물품 검사 당일 수입 물품 반출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3~4일이 소요된다. 특히, TSE 인증이나 각 정부부처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 검사에서 통관 시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된다.

V. 투자

1. 투자환경

가. 터키 정부에서 꼽는 對 터키 투자의 이유

터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외부 지향 경제 정책을 추진한 이래 외국인의 대 터키 투자 유치에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 몇 가지 사유를 들어 對 터키 투자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對 터키 투자매력

-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 거대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 경제의 빠른 성장
- 거대한 내수시장
- 숙련된 노동력
- 높은 품질수준
- 거대한 에너지원과의 밀착
-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유

자료: 터키 투자청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빠른 경제성장, 중동 내 2위의 인구규모(내수시장 규모) 등을 내세워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터키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한 여러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터키는 이러한 대외적인 홍보 외에도 2006년 외국인 투자 업체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당초 19개에 이르는 과정을 3개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며 국가 안팎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

나. 투자 시 유의 사항

한편, 터키 정부에서는 對 터키 투자의 이점만을 역설하고 있으나, 對 터키 투자 시에도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

□ 노동력

터키는 숙련된 노동자와 관리자 등 현지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지만 과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이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Izmir) 등 소수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도시 중심 지역은 인프라가 좋은 동시에 노동력의 임금도 높은 편이다. 여타 지역은 임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질 좋은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다.

□ 행정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정 처리가 만연되어 있어 각종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등 세부 행정 처리 지침이 불투명하여 투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투자 진출 시에는 오랫동안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민이나 기진출한 한국 기업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현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외 언어 문제, 인프라 낙후 등 기간산업의 취약 등도 투자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개요

터키에 대한 외국인투자(FDI)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2006년 201억 달러, 2007년 1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2008년 30%, 2009년에 60% 가량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 소폭 회복되어, 지난 2011년 외국인 투자 금액이 158억 달러를 기록하면,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다시 활기를 찾았었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 여파가 터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를 나타내었던 올 해에는 6월까지의 외국인 투자 금액이 총 66억 달러에 머무르면서 전년 동기 대비 90% 수준을 기록,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對 터키 외국인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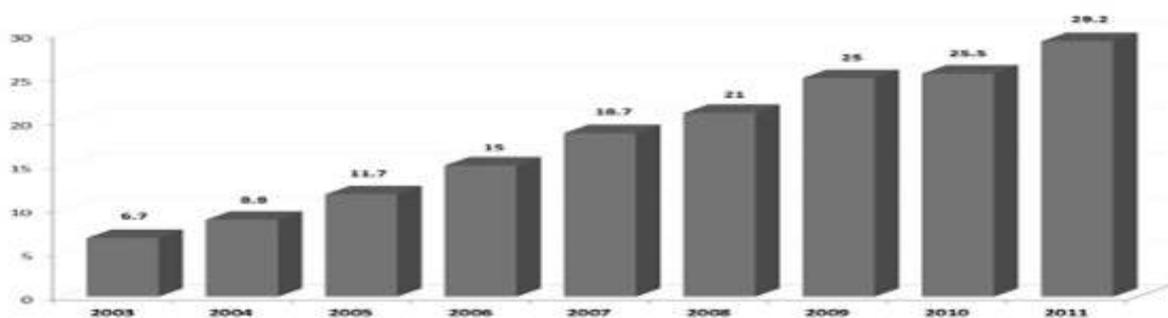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1-7월)
금 액	14,747	6,252	6,238	15,887	6,663

자료: 터키 경제부, 투자청

한편, 터키 내 외투기업수는 2011년 기준, 터키에는 약 3만개의 외투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03년 6,700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8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터키에 대한 투자 열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터키 내 외투기업 변화추이>

(단위: 천 개)



자료: 터키 투자청

나. 분야별 외국인투자 동향

터키에 대한 외국인투자(FDI)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았다. 2010년 이후 통계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2년간 對터키 외국인투자의 50%이상이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의 외국인 투자 현황에 의하면,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이 처음으로 서비스분야를 넘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6월까지 제조업(광업 및 에너지 생산·유통 포함)에 투자된 금액은 총 31억 달러로 서비스분야에 투자된 금액 29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일반 제조업(광업 및 에너지 생산·유통 제외)분야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터키 외국인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1(1-6월)	2012(1-6월)
○ 농업	82	32	20	21
○ 제조업	2,881	7,828	1,237	3,724
- 광업	135	144	24	85
- 에너지 생산·유통	1,823	4,271	561	497
- 일반 제조업	923	3,413	652	3,142
○ 서비스업	3,274	7,993	6,135	2,918
합계	6,238	15,887	7,392	6,663

자료: 터키 경제부, 투자청

다. 지역(국가별) 외국인투자 동향

지역 및 국가별 외국인 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터키 내 외국인 투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EU국가들의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현재까지도 EU 및 기타 유럽지역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가 對 터키 투자를 이끌고 있다. 한편, 아시아지역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또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EU 및 기타 유럽지역 국가들로부터의 투자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지난 1분기에 이어 가장 많은 19억 달러를 투자,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5위권 내에는 지난 해 투자가 없었던 레바논이 다시 들어왔고, 비록 금액은 크지 않으나 20위권 내에 한국을 포함한 5개의 비유럽 국가가 포함되는 등 투자가 점차 다양한 지역 및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위 국가(영국)와 5위(레바논) 국가의 투자금액 차이가 16억 달러에 이르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對 터키 투자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다양화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별 외국인투자 순위 및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1(1-6월)	2012(1-6월)
1	영국	245	917	503	1,951
2	오스트리아	1,584	2,235	229	1,384
3	룩셈부르크	292	481	267	676
4	네덜란드	486	1,587	803	551
5	레바논	29	44	0	312
6	스위스	122	233	134	291
7	독일	597	604	205	267
8	말레이시아	6	15	6	230
9	아제르바이잔	12	1,265	6	206
10	미국	323	1,402	266	204
11	이탈리아	25	98	38	110
12	프랑스	623	986	869	52
13	노르웨이	19	76	40	51
14	스페인	205	2,230	2,098	43
15	체코	36	6	1	41
16	벨기에	49	1,474	1,435	31
17	그리스	436	123	30	31
18	홍콩	21	163	149	28
19	대한민국	20	51	44	25
20	쿠웨이트	193	38	18	24
합계		5,323	14,028	7,141	6,508
투자금액 총계		6,238	15,852	7,392	6,663

자료: 터키 경제부, 투자청

라. 주요 외국인투자 사례

지난 2월 자동차 브랜드 르노(프랑스)를 시작으로 대규모 투자사례를 살펴보면 주요산업인 자동차 및 석유분야는 물론 최근 터키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에너지 및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Socar(아제르바이잔)는 에너지 분야에 8년간 총 100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GE(미국)의 3년간 총 9억 달러(의료, 인프라 포함) 투자 계획, Baxter(미국)의 1억 8천만 달러 투자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및 의료분야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따라 투자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주요 외국인 투자 사례

투자자	국가	금액 (백만 달러)	투자내용
Aditya Birla	인도	510	석유공장 건설
Baxter	미국	170-180	신약개발 및 생산라인 설치
Edge Capital	레바논	250	부동산 산업 투자
GE	미국	900	의료, 에너지, 인프라 투자 (3년)
Socar	아제르바이잔	10,000	발전설비 및 수송설비 투자(8년)
Ford	미국	1,000	자동차공장 증설
Aereports de Paris	프랑스	874	TAV Airports Holding 주식 38% 취득
Ferrero	이탈리아	95	초콜릿공장 건설
Renault	프랑스	254	자동차 공장 증설

자료: 터키 경제부, 투자청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개요

한국 기업의 대 터키 투자는 1980년 대 초반 이후 종합상사를 필두로 시작되었으나, 실제 투자 또는 진출은 1992년 전자저울 제조기업인 카스(CAS)가 최초로 터키 시장에 생산기지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7년 현대자동차, 2000년 LG전자(에어컨생산법인)가 협력업체들과 함께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제조업 투자가 시작되었다.

2012년 현재,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여 있으며, 자동차(및 부품), 전자제품(및 부품), 섬유(스판텍스), 철강(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전동차량, 담배 등의 분야에서 약 20여개의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통계에 따르면 2012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의 對 터키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약 9억 5천만 달러, 신고법인 수는 78개, 신고건수는 274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한국의 對 터키 투자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2Q)	누 계
금액 (신고건수)	89,827 (34)	247,295 (52)	66,696 (32)	144,204 (56)	38,112 (21)	<87~12> 954,200 (274)

주: 금액은 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나. 주요 투자사례

우리나라의 對 터키 투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이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도 다수 진출해 있다.

2012년 현재, 터키에는 약 60개의 우리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진출지역은 이스탄불을 비롯한 이즈미트, 브루사 등 주요 공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및 사례

(단위: 천 달러)

연번	회사명	투자 시기	투자내역	신고 금액	투자 금액
1	(주)카스	1992	이스탄불, 전자저울 판매법인 설립	1,500	1,500
2	현대자동차	1997	이즈미트, 자동차공장 합작투자	255,000	255,000
		2012	공장증설 증액투자		
3	한일이화	1997	이즈미트, 자동차내장제품 생산	36,000	36,000
4	경인양행	1997	아다나/메르신, 염료생산	1,906	1,606
5	만도기계	1997	부르사, 자동차용 Shock Absorber	15,000	15,000
6	LG전자	2000	이스탄불 외곽 게브제공단, 에어컨생산	12,435	12,435
7	CJ	2004	부르사, 사료공장 단독투자	2,140	2,124
8	미스도스	2004	테킬다, 장갑공장	200	2,500
9	한라공조	2005	게브제, 자동차용에어컨	2,991	2,990
10	(주)일진	2005	게브제, 에어컨 부품	1,000	500
11	KCC	2006	이즈미트, 도료 단독투자	32,000	32,000
12	현대로템(주)	2006	아다파자르, 전동차량	2,040	2,040
13	KT&G	2006	이즈미르, 담배	78,900	15,541
14	효성	2007	이스탄불 인근 체르케즈콰이, 스판덱스	160,000	160,000
15	대양금속	2007	출루, 스테인레스 판재	34,000	10,894
16	우리텍	2007	이스탄불 외곽 게브제공단, 에어컨 부품	1,600	1,598
17	호원	2007	이즈미트, 자동차 차체 프레스	-	20,000
18	YG-1	2007	이스탄불 이키텔리공단 절삭공구	-	200
19	포스코	2010	부르사, 철강재 가공 서비스	23,500	23,500
		2011	이즈미트, 스테인레스 스틸 냉연공장	350,000	-
20	서일	2011	이즈미트, 음료용 빨대 공장	18,000	6,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자체조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터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투자자들의 권리보호, 국제 기준에 따른 투자 및 투자자의 의미 정의,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7월 개정된 인센티브 정책 외에는 별다른 개정 없이 실행되고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법: Law No. 4875
- 제정일자: 2003년 6월 5일
- 공포일자: 2003년 6월 17일 관보

터키 외국인직접투자법의 기본 원칙은 내외국인 동등대우이다. 따라서, 수출 의무,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등 제한이 없고, 과실 송금도 보장되며 자본금의 외화 구좌 납입도 보장된다.

한편, 터키의 외국인직접투자법에는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 또는 장려책을 두고 있다. 일부 산업은 국가독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일부 산업은 투자 장려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나. 투자 제한 분야

터키의 외국인직접투자법은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 라디오 TV 방송(방송법 Law No: 3984)
 - 라디오 및 TV 방송국 관련, 외국인 지분은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EU에서 2009~2013년까지 외국인 지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내 민간 항공(항공법 Law No: 2920)
 - 터키 내에서의 승객, 화물 및 우편의 수송은 터키 국적의 항공사에 의해서만 이루어 가능
- 국내해운(해운법 Law No: 815)
 - 터키 내에서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터키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
 - 해운업(선박 견인, 항만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해상 무역, 수산업 관련 업무 또한 터키 국민들만 수행이 가능
 - 예외적으로 터키 국적 선박에 없는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외국 선사들이 최소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허가 취득이 가능
- 선박 소유(무역법 Law No: 6732)
 - 터키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선박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사회 의 과반수 이상이 터키 국민이어야 가능함.

- 전화 및 전보 서비스(통신법 Law No: 406)
 - Turk Telekom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4년 6월 16일부로 투자 제한 해제
 - 외국인도 통신 분야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터키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지분은 보유하지 않고 투표권만 보유)
- 정부 조달(정부조달법 Law No: 4734)
 - 정부 조달 관련 입찰 시 외국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보다 터키산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음
- 수산업(수산물법 Law No: 1380)
 - 수산물 채집, 낚시 등의 권한은 터키 국민에게만 부여됨
 - 양식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이 2003.7.22일부로 해제됨
- 요트 선착장(관광 촉진법 Law No: 2634)
 - 요트 선착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터키 국민 또는 터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함.
- 인력알선회사(고용법 Law No: 4904)
 - 터키 국민만 인력알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민간 경호서비스 회사(사설 경호 서비스법: Law No: 5188)
 - 터키 국민만 인력알선회사를 설립 가능

다. 투자 장려 분야

한편, 터키 외국인직접투자법은 외국인투자를 장려해야 할 산업들도 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장려산업 및 분야들은 기타 산업들에 비해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된다.

- 광업
- 테스트센터, 풍동 및 유사한 시설 투자
-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철도 및 해운시설 투자
- 관광진흥지역에 대한 관광업 투자
- 초, 중, 고 학교에 대한 민간 투자
- 특정 의료분야 및 방위산업에 대한 총액 2,000만불 이상의 투자

라. 투자 인센티브

2004년부터 터키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분야 보다 투자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법 개정을 통하여 터키 전 지역을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확대 구분하여 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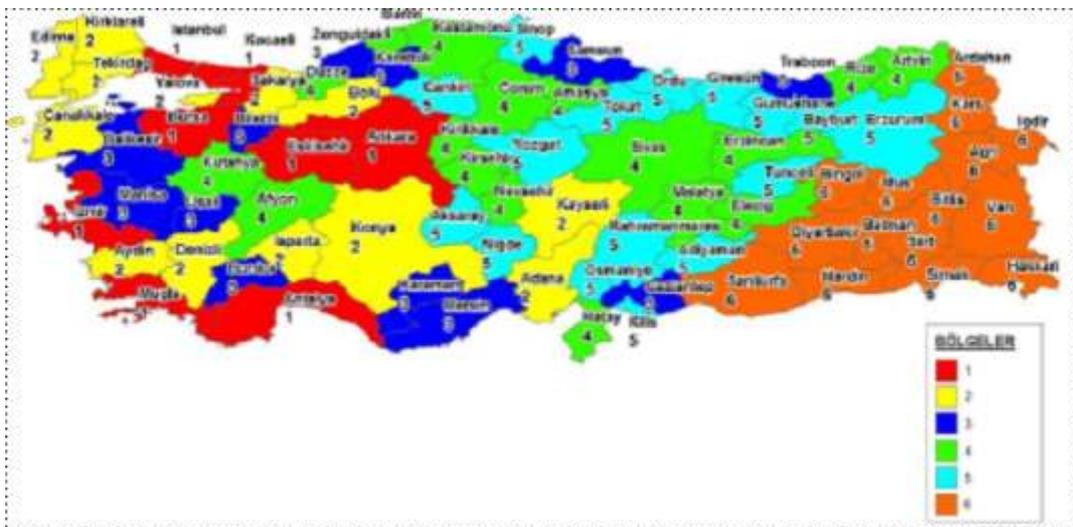
이러한 지역지정의 의도는 낙후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1지역(이스탄불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대비 축소되고 가장 낙후된 6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건부터 소급적용 된다.

□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터키의 투자지역은 개발 정도에 따라 6개 지역으로 구분, 가장 개발된 지역은 1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장 적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가장 낙후된 6지역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터키 투자지역 구분



지역구분	광역지자체명
1지역(빨강색)	Ankara, Antalya, Bursa, Eskisehir, Istanbul, Izmir, Kocaeli, Mugla
2지역(노랑색)	Adana, Aydin, Bolu, Canakkale, Denizli, Edirne, Isparta, Kayseri, Kirklareli, Konya, Sakarya, Tekirdag, Yalova
3지역(파랑색)	Balikesir, Bilecik, Burdur, Gaziantep, Karabuk, Karaman, Manisa, Mersin, Samsun, Trabzon, Usak, Zonguldak
4지역(초록색)	Afyonkarahisar, Amasya, Artvin, Bartin, Corum, Duzce, Elazig, Erzincan, Hatay, Kastamonu, Kirikkale, Kirsehir, Kutahya, Malatya, Nevsehir, Rize, Sivas
5지역(하늘색)	Adiyaman, Aksaray, Baybur, Çankiri, Erzurum, Giresun, Gumushane, Kahramanmaras, Kilis, Nigde, Ordu, Osmaniye, Sinop, Tokat, Tunceli, Yozgat
6지역(주황색)	Agri, Ardahan, Batman, Bingol, Bitlis, Diyarbakir, Hakkari, Igdir, Kars, Mardin, Mus, Siirt, Sanliurfa, Sirnak, Van

자료: 터키 경제부, 투자청

□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외에도 터키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산업 부문에 따라 최소 투자액을 설정하여 최소투자액 이상 투자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해당하는 산업분야는 대부분 터키의 주요산업분야로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이며 비교적 발달이 미진한 의료 및 제약분야도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최소투자액 기준

해당산업부문	최소투자액
화학	2억 터키리라
석유산업	10억 터키리라
파이프라인 서비스	5천만 터키리라
자동차 생산	2억 터키리라
철도차량 생산	5천만 터키리라
항만서비스	2억 터키리라
전자	5천만 터키리라
의료 및 광학기기	5천만 터키리라
제약	5천만 터키리라
항공우주산업	5천만 터키리라
기계산업	5천만 터키리라
광석 처리 설비 및 통합 금속 제련업 (광업법 제3213조에서 규정하는 IV/c 그룹 금속)	5천만 터키리라

자료: 터키 경제부, 투자청

□ 전략부문 투자 인센티브

한편, 지역 및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외에도 터키 정부에서는 전략산업(투자 장려 분야와 동일)을 선정,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의 경우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터키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 물류, 관광, 교육 등의 서비스업이 중심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R&D 시설 또는 의료, 방위산업 등이 있다.

□ 인센티브 세부적용 내역

위에서 언급한 지역, 대규모 투자, 전략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인센티브는 크게 세금감면(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이자지원, 토지 지원 등으로 나뉜다.

한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제공 위에 대규모 투자 또는 전략산업 투자가 있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세금감면 기준 투자분담금 비율

지역	세금감면 기준 투자분담금 비율 (%)			
	지역인센티브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2013.12.31일 이전 개시된 투자	2014.1.1일 이후 개시된 투자	2013.12.31일 이전 개시된 투자	2014.1.1일 이후 개시된 투자
I	15	10	25	20
II	20	15	30	25
III	25	20	35	30
IV	30	25	40	35
V	40	30	50	40
VI	50	35	60	45

주: 투자액대비 투자 실현 액 비율로 세액공제 한도 및 세율인하 적용의 한도

지역인센티브에 따른 세금감면 내역

지역 인센티브에 따른 세금감면 내역 (2013.12.31일 이전 개시분)				
지역	투자분담금 비율(%)	세금인하율(%)	투자기간/운영기간 중 세액공제 비율**	
			투자기간	운영기간
I	15	50	0	100
II	20	55	10	90
III	25	60	20	80
IV	30	70	30	70
V	40	80	50	50
VI	50	90	80	20

주: 총 세액공제액을 100%라 할 때 투자기간/운영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비율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내역

대규모 투자를 위한 세금 감면(2013.12.31 이전 투자 개시분)				
지역	투자분담금 비율(%)	세율인하율(%)	투자기간/운영기간 중 세액공제 비율**	
			투자기간	운영기간
I	25	50	0	100
II	30	55	10	90
III	35	60	20	80
IV	40	70	30	70
V	50	80	50	50
VI	60	90	80	20

주: 총 세액공제액을 100%라 할 때 투자기간/운영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비율

공제법인세액 및 세율 산출예시

구분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투자액(천 TL)	5000	5000	5000	5000	5000
세율인하비율 (%)	55	60	70	80	90
투자분담금비율(%)	20	25	30	40	50
총세액공제가능액(천 TL)	1000	1250	1500	2000	2500
투자기간(천 TL)	(10%) 100	(20%) 250	(30%) 450	(50%) 1000	(80%) 2000
운영기간(천 TL)	(90%) 900	(80%) 1000	(70%) 1050	(50%) 1000	(20%) 500
실현투자액이 투자 분담금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되는 감면법인세율 (원세율 20%)	9% (원세율 대비 55% 인하)	8%	6%	4%	2%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 내역

지역	2013.12.31일 이전 개시된 투자	2014.1.1일 이후 개시된 투자	지원한도액(고정투자액 대비 %)	
			지역인센티브	대규모투자 추가지원
I	2 년간	-	10	3
II	3 년간	-	15	5
III	5 년간	3 년간	20	8
IV	6 년간	5 년간	25	10
V	7 년간	6 년간	35	11
VI*	10 년간	7 년간	50	15

주: 6지역 OIZ 입주기업의 경우 12 년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 지원내역

구분	법정기준액(TL)	감면액(TL)
최저임금 (2012년 상반기)	886,50	-
종업원 사회보장세 부담분(14%)	124,11	124,11 "
실업보험료 부담분(1%)	8,87	-
종업원 소득세 감면분	113,03	113,03 "
인지세	5,85	-
종업원 부담액 총계	251,86	-
종업원 순수령액	634,64	-
사용자 사회보장세 부담분 (19.5%)	172,87	172,87
실업보험료 부담분 (2%)	-	17,73
사용자 총 부담액	1.077	410,01

주: 최저임금은 6지역만 해당

이자비용 지원

지역	이자율 감면(%p)		최대지원한도액 (천 TL)
	TL화 대출	외화 대출	
I	-	-	-
II	-	-	-
III	3 point	1 point	500
IV	4 point	1 point	600
V	5 point	2 point	700
VI	7 point	2 point	900

지역별 인센티브 적용 내역

지원항목/지역		I	II	III	IV	V	VI
부가세면제		○	○	○	○	○	○
관세면제		○	○	○	○	○	○
세금감면 한도액 (총 투자액 대비 %)	OIZ외	15	20	25	30	40	50
	OIZ내	20	25	30	40	50	55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 기간	OIZ외	2 년	3 년	5 년	6 년	7 년	10 년
	OIZ내	3 년	5 년	6 년	7 년	10 년	12 년
토지 지원		○	○	○	○	○	○
이자비용 지원		N/A	N/A	○	○	○	○
근로자 소득세 면제기간		N/A	N/A	N/A	N/A	N/A	10 년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 지원 기간		N/A	N/A	N/A	N/A	N/A	10 년

전략부문 투자 인센티브 내역(모든 지역 해당)

인센티브 항목	지원내역
부가세 및 관세 면제	해당
세금감면 한도액 (총 투자액 대비 %)	50%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지원 기간	7년(6지역의 경우 10년)
토지 지원	해당
사업장 건설 관련 부가세 환급	건물건설 용도의 5억 TL 이상 투자 대상
이자비용 지원	투자금액의 5% 한도내에서 최대 5천만 TL한도
근로자 소득세 면제 기간	6지역에 한하여 10년간
고용주세 근로자 부담분 면제 기간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투자법 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최소자본: 50,000TL (약 U\$ 33,333) - 최소주주: 최소 5인 이상 - 이사회: 최소 3인으로 구성, 구성원은 주주들에 의한 선출 또는 정관에 의해 지정 - 상장: 주주 250인 이상, 금융업의 경우 3,000만TL (약U\$ 2,000만)의 자본금이 필요	- 최소자본: 5,000 TL (약 U\$ 3,333) - 발기인: 최소 2인에서 최대 50인 - 경영인: 전권 위임 경영 - 이사회: 없음 (경영인 전권 위임) - 비고: 금융업과 보험업 진출불가 자본금의 1/4은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현금 납부, 나머지는 3년 이내에 납부 필요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법인설립 절차는 기본적으로 내국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지법인 설립절차

NO.	구분	비고
1	회사 정관 공증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업 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 제출	터키 전역에 분포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정관 공증서류(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 터키어로 공증을 받은 회사 정관 3부(원본 1부 포함)를 공증일자 기준으로 최소 15일 이내에 여타의 필요서류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자본금 납부 확인 증명서(은행 영수증) -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0.4%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데, 동 금액에 대한 납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소비자 보호 기금 납부 증명서 - 생산 또는 판매 하는 제품 성격에 따라 소비자 보호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되는 영역의 경우 납부가 필요함. - 소비자 보호기금은 자본금의 0.1%. ○ 기타 필요서류 - 상업등기소 제출용 신청서 - Establishment statement 5부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주주(발기인)의 사진 및 여권 사본 - 터키 상업등기규정 준수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준비 비용 - 유한책임회사 ·회사 정관: 900TL ·서명신고서: 22TL (1인당, 2 document) ·신분증 복사: 11TL(1인) - 주식회사 ·회사 정관: 200TL ·서명신고서: 22TL (1인당, 2 document) ·신분증 복사: 11TL(1인) ○ 등록 비용 - 663 TL - 한 사람만 등록될 경우, 추가 인원을 등록할 경우 한 사람당 127 TL의 추가 비용 발생
3	세무서(Tax office) 등록	○ 무료
4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ette)'에 등록 내용이 공지된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등기관보 등록 비용 - 137.5 TL (평균) - 66 ~340 TL

나. 지사(Branch Office)

터키 내 지사의 설립도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지사설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외국기업 지사는 투자법 상 터키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익과 관련하여 터키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단, 한국과 터키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현지지사 또는 한국 본사 에서 세금 납부 시 한국 또는 터키에서 이중으로 납세할 의무는 없음)

지사 설립의 절차는 터키 통관무역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절차

NO.	구분
1	○ 터키 통관무역부에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지사 설립신청서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회사명, 국적, 설립일자, 주소, 자본금, 영업분야 등 필수 기재 ○ 본사의 지사 설립 결의서 공증본 ○ 회사 정관 원본 공증본 ○ 본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본사의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 대표자 서명 신고서 및 여권 사본(공증본) ○ 터키 상업등록규정 준수 서약서
2	상업등기소(Trade Registry Office)에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상업등기신청서 ○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지사 설립 허가서 ○ 지사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공증본 ○ 본사에서 발행한 지사대표자 승인 및 직위 승인서
3	세무서(Tax office) 등록
4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ette)'에 지사 등록 내용 공지→ 본격적인 영업활동 시작

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외국인은 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무성 경제부 산하 DFI(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의 승인을 얻은 후 터키에 연락사무소(단, 금융업 및 보험업 등은 특별법에 의해 관계당국 및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함)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연락사무소 설립은 현지법인 또는 지사와 달리 신청 후 5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소는 최대 3년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NO.	구분	비고
1	외국인투자국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dersecretariat of Treasury) 에 필요서류 제출	전화: 90-312-212-5880 웹사이트: www.treasury.gov.tr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의 종업원 수 및 연 지출 추정치를 증빙할 수 있는 'Certificate of Activity'(영업활동증빙) 원본 ○ 본사의 영업활동보고서 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본사에서 발행한 터키 연락 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승인서 ○ 연락사무소 설립을 법적으로 진행할 사람에 대한 위임장 	소요기간: 5일 내외
3	세금사무소(Tax Office)에 등록	1달 이내, 무료

6. 투자입지여건

주요 산업 분포 및 지역별 투자 이점



가. 터키 북서부 (이스탄불과 근교도시)

□ 장점

터키의 외국인 투자는 이스탄불과 인접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터키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해당지역이 경제 및 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가장 잘 조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선박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또는 CIS지역 등 주변국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즈미트 (자동차, 전자), 게브제(전자), 부르사 (섬유) 등 이스탄불 근교 도시들에 주요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연관 효과를 볼 때도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 단점

이스탄불 및 인근지역은 토지단가가 높고 인건비가 비싸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터키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또한 가장 적은 단점이 있다.

나. 터키 내륙 및 남동부

□ 장점

품목에 따라서는 터키 내륙 또는 남동부지역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석유화학, 발전 등 극히 제한적인 품목에 해당된다. 내륙 또는 남동부지역은 중동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며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낮은 토지단가 및 인건비, 터키 정부의 높은 인센티브 등으로 인한 이점 또한 이들 지역이 유리한 조건들이다.

□ 단점

낮은 인건비 및 중동지역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인프라 조성이 미흡하여 여전히 투자가 부진한 점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점들이다.

나. 산업단지

터키에서 산업단지의 지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허가를 요청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허가제로 진행됨에 따라 의료, 전기/전자 등 특정 산업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계획적인 단지 조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주요 산업단지 분포



한편, 현재 터키에는 총 80개 지역에 263개의 산업단지가 중 148개는 조성이 완료되어 기업들의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고, 나머지 115개는 현재 조성이 진행 중에 있다.

남동부 및 중부내륙지방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는 Ostim 산업단지를 포함, 약 5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각각 약 200~700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북서부지역에는 이스탄불뿐 아니라 브루사(Bursa), 이즈미르(Izmir), 이즈미트(Izmit) 등에 각각 최소 75개~최대 27,000개의 기업입주들이 입주해 있는 다양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해 있다.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주요 내용

□ 법정 근무기준

터키 노동법 상 법정근무시간은 1주일에 45 시간이며 이를 넘을 수 없다. 단,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계약으로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최대 1일 11시간을 넘을 수 없다. 초과 근무수당은 주중의 경우 50%, 일요일과 기타 휴일의 경우 100%의 프리미엄을 적용한다. 유급휴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년 근무: 14일, 6~15년 근무: 20일, 15년 이상 근무: 26일을 주도록 되어 있다. 법정휴일은 국경일, 종교휴일, 신년 등으로 평균 13일이다.

한편, 법정 근무요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이며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5시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2일간은 휴일로 한다.

□ 정년퇴직

법정 퇴직연령은 몇 차례 법률개정을 통해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1999년 9월 8일 ~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근무를 시작(첫 근무지)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연령이 남자 60세, 여자는 58세로 정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를 시작(첫 근무지)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과 관련하여서는 오는 2028년을 기준으로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9,000일(근무일 기준) 이상 하고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상이 되면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한편, 2036년 이후에는 근무일이 7,000일(근무일 기준)으로 줄어들며 정년퇴직 연령이 남녀 모두 65세로 통일되게 된다.

□ 사회보장

터키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법(법률 제506호)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보장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는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보장 병원에서 무료진료와 연금제도이다.

실업보험과 관련 근로자는 급여의 1%를, 터키 정부와 고용주는 급여의 2%를 실업보험으로 납부한다. 이를 통해 터키 정부는 실업자에게 실직 직전 4개월 동안 1일 평균 급여의 50%를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최장 300일 동안 지급한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관할 사회보장기금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고용주가 기준급여의 21.5%, 근로자가 1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36.5%를 일괄 납부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급 분을 차감하고 있다.

한편, 2011년 5월 31일 개정된 사회보장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터키 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단,

사회보장관련 협정이 맺어진 국가들은 제외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이 협정이 발효(2013년 1월 1일 예정)되면 터키에 파견된 한국직원들의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 노동조합

터키에서는 아직까지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조합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으로, 노동조합 결정이나 참여도는 전체 기업 및 근로자 수의 약 10% 내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특이한 것은 회사들이 자체지부보다는 전국적인 조합의 지도부와 협상을 벌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경영자협회의 회원가입은 협회가 자주 단체협상에서 고용주를 대표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나 가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터키에서 사무직 근로자는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다. 즉, CLOSED SHOP, UNION SHOP등의 강제규정은 없다. 터키는 사업장 단위노조-산업별노조-전국노조연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국 노조연합은 TURK-IS(터키 노동조합 연맹), HAK-IS(이슬람노조), DISK(혁명노조연합) 등 3개로 나뉘어 있으나 회원수(168만 명)나 역사적인 면에서 TURK-IS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국제회의에도 터키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

나. 채용 / 해고 조건

일반 근로자는 큰 어려움 없이 채용할 수 있다. 일부는 지역고용사무소를 통해 채용되나 대부분 회사는 공장 정문에 채용광고를 게재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또는 지역신문광고를 통해 채용한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여름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하고 졸업 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정식 채용하기도 한다.

한편, 높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높은 수준의 관리자들은 있으나 그들은 임금은 낮아도 승진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기업보다 터키 대기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고용계약은 고용된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또는 일방의 의지에 따라 해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고용종료의 고지(해고 예고)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나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있는 퇴직 또는 군복무, 여성의 결혼 등을 위한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수당지급액은 근속연수에 1개월 치 임금을 곱한 금액에 근무 연수에 따라 구직 기간 동안의 급여(최장 8주)를 합한 금액이다. (근속연수 X 1개월 치 임금 + 구직기간 동안 급여) 정부에서는 퇴직수당계산에 기준이 되도록 최고 월 임금액을 정하며 매년 2회에 걸쳐 이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실제임금이 이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퇴직수당 계산 시 정부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정부, 근로자,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것이 노동 시장의 최저 임금 수준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은 1년에 2차례 조정되었다가 1차례 조정되는 등 변동되었으나 2007년부터 다시 1년에 2차례 조정되고 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경우, 일반노동자는 1,000~1,500달러, 엔지니어(중견기술자)는 2,000~4,000달러, 중간 관리직 2,500~4,50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회사의 노동자는 일반 터키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기대한다. 또한 지역별 임금차이가 커서 이스탄불 지역의 인건비 수준은 다른 지역 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한편, 터키에서는 임금 외에 식비, 교통비 지급이 일반적이며 결혼, 출생, 질병, 사망 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회사는 터키 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

터키의 대기업에서 보너스 지급은 대체로 일반적이며 연말보너스, 가족수당, 휴가나 종교 명절 전에 상여금 지급 등이 단체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석유산업과 같은 고수익 산업은 보너스로 6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 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

임금인상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터키(연 평균 10%)에서는 임금인상이 노사 간의 주요 현안사항이 된다. 임금인상의 기준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근로자들이 감수하는 경우가 있다.

터키의 대기업에서 보너스 지급은 대체로 일반적이며 연말보너스, 가족수당, 휴가나 종교 명절 전에 상여금 지급 등이 단체협상에 따라 정해진다. 석유산업과 같은 고수익 산업은 보너스로 6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8. 조세제도

터키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개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 재산세(상속증여세, 토지세, 자동차세 등) 등이 있으며,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납부 기한은 이듬 해 4월 말까지이다.

한편, 터키는 현재 총 67개국(보스니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카타르, 남아공 등 의회 비준 후 발효를 기다리는 국가 6개국 포함)과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는 1986년 3월 27일 발효되어 1987년 1월 1일부로 이중 과세 방지가 적용되었다.

가. 소득세

□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상업 활동, 급여, 투자소득 및 기타 등 법률상으로는 총 7 가지 소득원에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조세법 상 국내의 소득과 국외에서의 소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모두의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되며, 소득에 따라 구분, 최소 15%에서 최대 35%까지 규정되어 있다.

터키 소득세율(개인)

구분	금액(TL)	세율(%)
1군	- 9,400	15
2군	9,401 - 23,000	20
3군	23,001 - 53,000	27
4군	53,000 -	35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서 명목 법인세율은 20%이나,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율이 10%로 실질 법인세율은 22%이다.

한편, 배당 소득세의 경우, 한-터키 이중 과세 조약에 따라 25% 이상의 주식 소유 배당금 세율은 15%로, 25% 미만의 주식 소유 배당금 세율은 20%로 적용한다.

나. 소비세

□ 부가가치세

터키 부가가치세의 일반 세율로 18% 이나 업종에 따라 1%, 8%, 26%, 40%의 부가세를 적용 받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 1%: 농산물, 신문/잡지, 리스거래(자동차, 비행기 제외) 등
- 8%: 식품, 극장/오페라 등 입장권, 교육 서비스 등
- 26%: 화장품, 주방 용품, 음향 및 영상 기기, 보석류 등
- 40%: 자동차, LPG 등

□ 기타

한편, 부가가치세 외의 소비세에는 특별소비세(주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담배, 술, 고급제품 등에 부과), 인지세, 특별 통신세(휴대폰 사용, 라디오 또는 TV수신료 등에 부과) 등이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터키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자본, 수익, 배당금에 대한 자유로운 과실 송금이 보장되어 있어 외환 관리는 자유롭다. 이는 터키가 OECD 회원국으로 외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자본 시장개방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는 OECD 설립 시부터 회원국임)

현지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초기 투자 시 현지 파트너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터키의 경우 금융 시장이 일찍부터 개방되어 있어 신용도 조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 없이 처음부터 대출 및 융자와 같은 자금 조달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초기 투자를 위한 자본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단 투자가 시작된 후에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많이 덜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예치시켜야 하거나, 1년 이상의 대출 시에는 특별세가 붙는 등 특별조항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VI. Business 참고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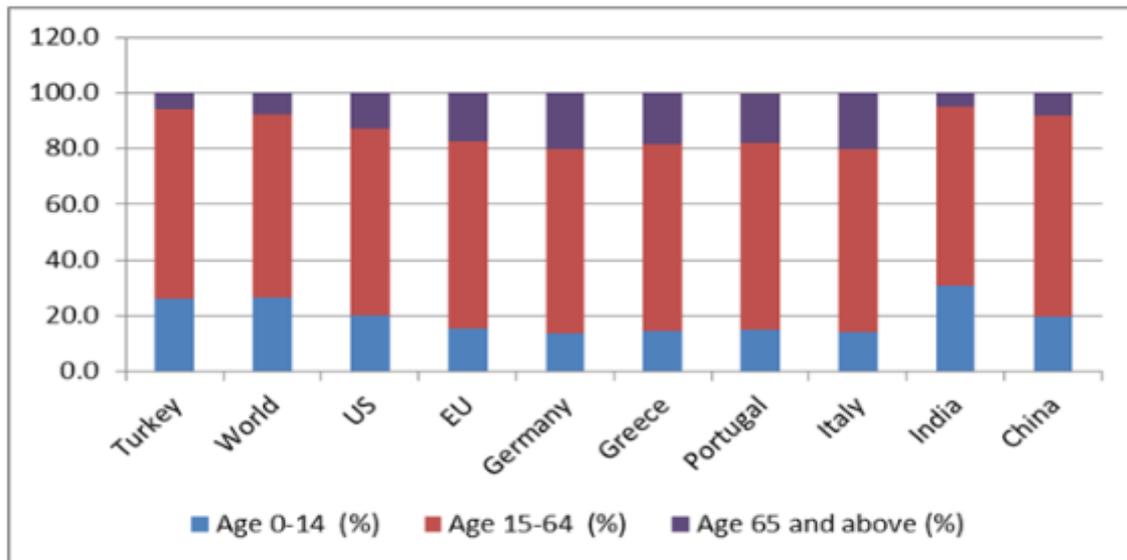
1. 시장특성

가. 젊은 소비층

터키의 인구규모는 2012년 현재 약 7,500만명으로 유럽기준으로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중동기준으로도 이집트 다음으로 가장 큰 인구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연 평균 인구증가율은 1.36%로 EU의 평균 0.28%와 독일의 -0.2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터키 시장의 특징은 전체 인구규모 대비 젊은 층의 높은 분포를 들 수 있는데, 터키 인구의 평균연령은 29.7세, 인구의 50.4%가 30세 미만으로 젊은 층의 인구분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생산 가능인구(15세~60세)가 전체의 67.3%에 이르며 이들이 주요 소비층으로도 활동하면서 이들이 터키 전체의 생산 및 소비를 이끌고 있다.

터키와 주요국가 인구분포 비교



자료: 터키 경제부

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시장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제·문화적 가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터키는 유럽의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수입, 중동 등으로 재수출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및 천연자원들을 수입, 유럽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국민의 대다수(약 95% 이상)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親 서방 정책을 펴고 있어 회교권 국가들과 서방국들의 문화적·사회적 가교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터키 및 인근국가 자원 흐름도



자료: 터키 경제부

또한, 문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해양교통의 연결로에 위치하여 흑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상품 공급지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다. 주요 특성

□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

최근 터키의 주요 소비층이 20~30대로 넘어오면서, 이전에 비해 보다 트렌드에 민감해진 소비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은 단순히 가격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으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트렌드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진입이 힘들었던 아이디어 상품 등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트렌드에 따른 소비의 예: I-Phone

	1. 메뉴 및 운영시스템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2.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3.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소속감 형성
	4. 관련 악세서리가 다양하여 재미있다.
	5.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많고 정착속도가 빠르다.

자료: 이스탄불무역관 자체조사

나. 유럽기준의 상품인식

비록 터키를 중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으나, 실제 경제권에서는 중동보다는 유럽에 가까운 나라다.

일찍이 많은 유럽기업이 터키로 건너와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1996년에는 EU와 관세동맹을 체결,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시작하였다. 2012년 현재 EU와 터키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비관세장벽 또한 EU는 거의 모든 조치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등 EU와 같은 경제권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 및 품질 등은 유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기업들의 경우, EU보다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가격이나 기타 경쟁력측면에서도 EU기업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품질 측면 또한 EU기업들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수준으로 평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지역별·소득수준별 부의 편중 현상 심각

지역적으로는 이스탄불이 위치하고 있는 마르마라지역, 에게해 및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해안 도시에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수도인 앙카라를 제외하고는 내륙 지역은 거의 산업 발달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비는 터키 전체 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생산과 더불어 지역 간 소비의 불균형 또한 심각한 편이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극심한 소득 불균형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극심하게 양분되어 있으며, 중산층의 분포가 적어 부유층 소비자들은 수입 브랜드 등 값비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빈곤층의 경우는 브랜드 및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 유통채널의 확대

터키의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도 현대적인 유통채널에서의 구매보다는 재래시장에서의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설 대규모 재래식 시장이나 정기적으로 마을 주변에 형성되는 요일(화요 시장, 수요 시장, 목요 시장 등) 시장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스탄불 내에서도 전근대적 유통영업점 규모를 약 15만개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로 전근대적인 유통망에 의한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절대적인 비중은 적으나 최근 Migros, Carrefour 등 현대적 대형매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 또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들로 시장 등에 비해 일부 부유층 또는 중산층들만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판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및 확산도 이러한 유통망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터키의 유통망 예시



자료: 이스탄불무역관 자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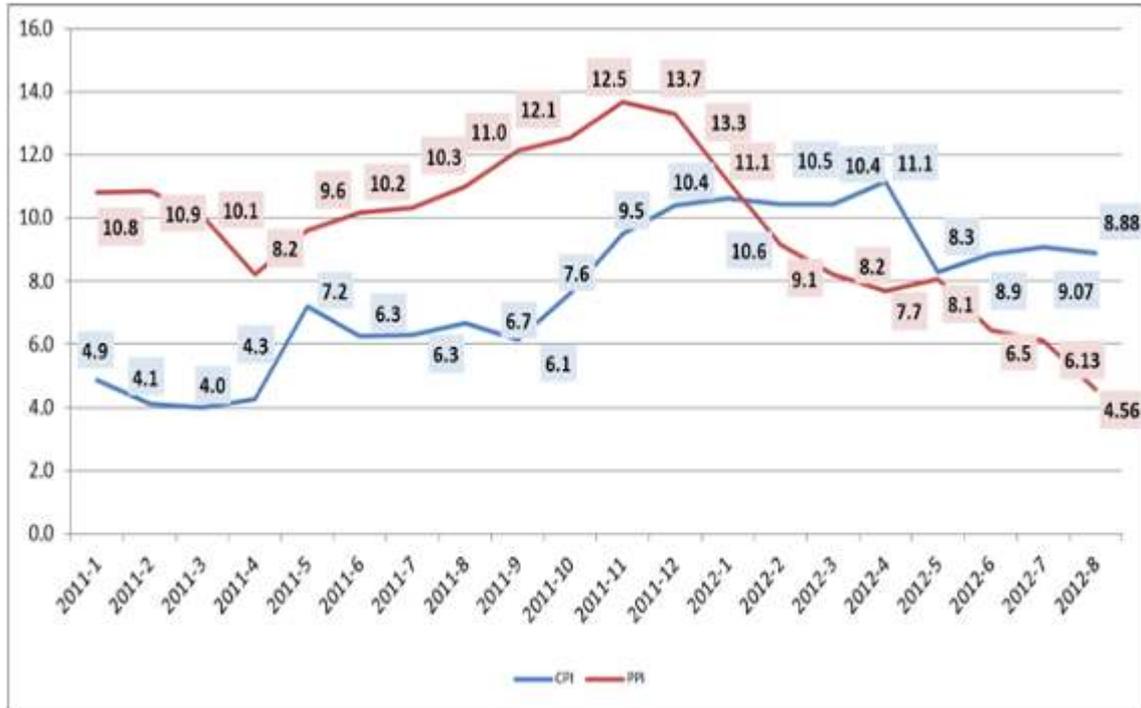
마. 부정부패 만연 및 엄청난 규모의 지하 경제

기업가, 관료, 정치인들의 결탁에 의한 부정부패가 아직도 만연하며 탈세가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전근대적 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무등록 사업장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지하 경제의 규모는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물가정보

터키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가상승률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물가상승률이 연 평균 20%대에 육박할 정도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높았으며, 현 정부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으로 이전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는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연 평균 10%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터키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



자료: 터키 경제부

상품별, 품목별 물가를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4.47TL, 약 2.5 달러로 유럽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이 외에도 높은 세금으로 인해 차량과 관련된 비용, 교육비, 통신비 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차량비, 교육비, 통신비 등은 외국인이 현지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현지 물가에 비해서 외국인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터키 물가표

(1 US\$ = 1.78 TL, 2012년 9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TL)
식품류	쌀 1kg	2-16
	계란 12개	4-5
	쇠고기 등심 1kg	40.9
	돼지고기 등심 1kg	N/A
	우유 500ml	1.25
	식용유 1L	7-8
	생수 1L	0.7-0.8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23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8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7.90
	김치찌개 1인분	25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 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85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7
차량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매틱, 에어컨 포함 기본 사양)	65,000
	무연휘발유 1L	4.47
	자동차 등록비	700
	자동차 보험료 (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 1년)	2,416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2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95
	시내버스 기본요금	1.95
	택시 기본요금	2.7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USD 25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0.7
	인터넷 월 사용료 (ADSL 기준)	62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200-9,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D 23,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D 24,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D 25,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22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USD 2,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USD 1,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5년 경력과장급 월급여, 영어구사)	USD 4,5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5
	출산휴가일수	16주
	연간 국경일수	14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근무
기타	드라이 크리닝 (정장 1벌 기준)	20

3. 바이어 발굴

가. 온라인 발굴

최근 터키 인터넷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이 보다 쉬워졌다.

대기업들 외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접근이 쉬워졌으며, 따라서 구글의 터키어 사이트(www.google.com.tr) 등을 통해 간단히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터키에는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 DB사이트는 없어 기업 자체로부터의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바, 최신정보 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재무정보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을 제외하고는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나마, 비교적 최신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유료 사이트로는 Kompass(www.kompass.com) 등이 있으며 간단한 기업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각 지역 및 산업분야의 상공회의소, 협회 및 전시회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공회의소 및 주요협회	전시회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탄불 상공회의소(www.ito.org.tr) - 앙카라 상공회의소(www.atonet.org.tr) - 이즈미르 상공회의소(www.izto.org.tr) - 부르사 상공회의소(www.btso.org.tr) - 에게 공업회의소(www.ebso.com.tr) - 철강제조협회(www.d cud.org.tr) - 신발협회(www.turkishoes.org) - 자동차산업협회(www.osd.org.tr) - 이스탄불 섬유유류수출협회(www.itkib.org.tr) - 전자산업협회(www.tesid.org.tr) - 정보과학협회(www.tbd.org.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R(www.cnrexp.com) - TUYAP(www.tuyap.com.tr) - IZFAS(www.izmirfair.com.tr)

나. 오프라인 발굴

한편, 온라인 발굴 외에 오프라인 발굴의 경우, 터키의 주요 언론매체 나 전시회 카탈로그 등을 통해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언론매체에는 각 지역 산업개발공사 등이 관할기업의 구매정보를 정기적으로 대행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참고가 가능하며, 전시회 참가 업체 카탈로그 등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프라인 매체들은 온라인에 비해 최신정보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을 통한 바이어 발굴에는 제한이 있다.

터키 내 주요 오프라인 언론매체

- 뉘야(경제전문지, www.dunyagazetesi.com.tr)
- 피난살포룸(경제전문지, www.finansalforum.com.tr)
- 터키 데일리뉴스(영자신문, www.turkishdailynews.com)
- 휴리엣(일간신문, www.hurriyet.com.tr)
- 사바(일간신문, www.sabah.com.tr)
- Turkish Weekly(영자신문, www.turkishweelky.net)
- 뉴아나톨리안(영자신문, www.thenewanatolian.com)
- 공보처 운영 웹사이트(영문뉴스, www.turkishpress.com)
- 터키 financial times (영문뉴스, www.financialtimes.com)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 복장

공식적인 방문이나 미팅 시에는 (특히, 대기업) 대부분 정장을 갖추어 입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방문 또는 소규모 바이어 방문 시에는 보통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복을 입고 만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양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양복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차림새는 필수적이다.

□ 인사

터키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 주로 악수를 나눈다.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오래 악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악수보다는 손을 오래 잡고 있는 편이다.

친근한 사이라면 동성 간에도 서로 포옹 하고 양 볼에 입을 맞추며(정확히는 ‘쪽’하는 소리를 내는 것) 인사를 나누기도 하나,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악수만으로 무난하다.

□ 선물

처음 만나는 기업 또는 인사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면 분위기를 보다 부드럽게 이끌어 가고 수 있으며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바이어에게 부담이 되는 선물보다는 기업로고가 새겨진 작은 기념품 또는 한국 전통무늬가 새겨진 기념품 등을 건네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주로 USB 메모리, 휴대전화 액정클리너 등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의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다.

□ 약속

터키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며, 최소 방문 3~4일 전에는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 기업의 경우, 확정된 약속은 거의 변동 없이 잘 지켜지지만, 정부기관들의 경우에는 간혹 약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기관 및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방문 약속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1주일 전에는 약속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 식사

터키에서의 식사 초대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위해서도 좋다.

한편, 바이어를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에는 한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므로, 한식보다는 터키식이나 양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좋다.

나. 문화적 금기 사항

터키인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므로, 종교적인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이슬람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요리 등은 권하지 말고 동석하는 한국인들 역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터키인들은 과거 오스만 제국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국가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터키나 터키 사회에 대한 의견 및 견해를 이야기 할 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바이어의 반감을 사고 상담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다.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 대면상담

터키에는 바이어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정보소스가 거의 없어 무역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바이어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어 회사 또는 공장 등을 직접 방문, 회사규모, 영업현황, 종업원 규모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 상담언어

터키 바이어들의 경우 기업 또는 사람에 따라 영어구사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현지기업이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문 약속을 잡을 때 영어 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하는 한국기업에서 통역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 독점요구

터키 바이어들의 특징 중 하나는 협상 초기 단계부터 독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단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바이어와 마찰이 발생하거나,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점권 부여는 가급적 일정 기간 이상의 거래를 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다만, 바이어가 독점계약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구두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에는 이후 큰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상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한편, 우리기업들이 바이어와 독점계약(서면) 체결 후, 바이어와의 마찰 또는 실적 저조를 이유로 다른 바이어들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독점권을 가진 바이어가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라. 외상거래

터키는 대금납부 지연, 채무불이행 등 무역사고가 많은 곳 중 하나로 첫 거래에서부터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외상거래는 되도록 지양하는 하는 것이 좋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기업들 간에도 양측 간 신뢰가 충분히 쌓인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무역 애로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는 기업정보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대금납부 지연 등의 무역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국가로 이러한 시스템 상의 문제점들이 우리기업들의 무역, 투자진출 시 큰 애로사항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무역사고

고의적 통관 지연	대금 지불 전에 물품이 터키 세관에 도착한 경우, 바이어가 고의로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물품의 인수 거절을 요구하는 경우로 현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마켓 클레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고의적 대금결제 지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무역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의 해결 능력과 해결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이어는 고의로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에는 터키 현지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KOTRA 무역관 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이용한 경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바이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구할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이나 KOTRA를 통해 소개받는 것이 좋고,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변호사가 제시하는 사건 해결 계획과 소요 비용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나. 투자진출 애로사항

터키 투자 진출 시 우리 기업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는 노동허가 및 외국인 거주증 발급의 어려움, 토지매입,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을 들 수 있다.

1) 노동 허가(work permit) 및 외국인 거주증(residence permit)

현지 연락 사무소, 지사 및 법인의 본사 파견 직원의 경우 터키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 및 외국인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허가는 파견직원이 터키 입국 약 1~2개월 전 파견국 주재 터키 대사관에 신청하고, 동시에 터키 내 지사 및 법인에서 터키 노동부로 신청하여 터키 노동부에서 노동허가가 발급되면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파견국 주재 터키 대사관에서 노동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게 된다.

단, 최초 현지 법인 등 설립을 위해 부임하는 경우, 거주증을 우선 발급받고 법인 등 설립 후 법인 명의로 현지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노동허가를 발급 받은 후, 재입국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데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어, 많은 현지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파견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노동 허가를 발급 받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을 겪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 1명 당 5명의 터키직원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현지 진출 지사 및 법인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단, 진출기업 중 외국인 파견인원이 1명을 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예외사항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 토지 매입

2008년 터키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터키에서는 다시 일부 개발 제한 구역 및 군사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토지 매입이 가능하며, 현재도 많은 외국기업들이 직접 토지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 진출하는 지사 및 법인들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 산업단지 내의 토지매입 시 단지 내 토지를 개인이 조금씩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투자 진출 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각 토지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진출 기업은 각 개인별로 토지 매입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사례: 현대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투자시기: 1995년 9월 - 자본금: 1억 500만 달러 - 투자액: 2억 7,000만 달러(2007년 기준) - 2007년 3월 확장 투자를 완료하여 10만 대 생산체재 구축 완료 ※ 합작비율: 초기 50:50→2006년 이후 70(현대): 30(Kibar Holding) - 근무인원: 약 1,700명 (주재원 및 현지직원 포함) 	 <p><현대자동차 터키공장></p>
---	--

현대자동차는 1995년 9월, 터키의 Kibar Holding (Assan의 지주회사)과 50 대 50 합작법인 '현대 아싼 (Hyundai Assan)'을 설립하면서 터키에 진출하였다.

현대 자동차의 터키 진출은 터키 내수시장 공략은 물론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생산기지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지난 몇 년간 현지진출 브랜드(총 17개) 중 생산량 기준 약 5~6위권을 유지하면서 점차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터키 내 브랜드별 자동차 생산현황(2012 1~7월)

	P.Car	Truck	Pick Up	Bus	Mini Bus	Midi Bus	Total
Oyak Renault	181,864	0	0	0	0	0	181,864
Ford Otosan	0	5,034	146,855	0	14,525	0	166,414
Tofas	22,848	0	136,557	0	0	0	159,405
Toyota	52,460	0	0	0	0	0	52,460
Hyundai Assan	52,274	0	0	0	0	0	52,274
Honda Türkiye	14,350	0	0	0	0	0	14,350
M. Benz Turk	0	10,314	0	1,861	0	0	12,175
Karsan	0	631	7,895	0	1,983	0	10,509
A. Isuzu	0	1,531	233	0	0	958	2,722
Tersa Global	0	298	372	607	0	288	1,565
B.M.C	0	1,157	0	203	0	100	1,460
Otokar	0	0	136	317	19	930	1,402
M.A.N Türkiye	0	0	0	823	0	0	823
TOTAL	323,796	18,965	292,048	3,811	16,527	2,276	657,423

자료: 터키 자동차유통업 협회

한편, 현대자동차가 터키 내에서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1999년 대지진 발생 때 공장이 크게 파손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으며, 2005년 터키 정부의 상용차 세금 관련 해프닝으로 (상용차 세금을 상향조정 후, 관련업계 반대로 1달 후 하향 재조정)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일시적인 사건들 외에도 잦은 외환위기에 따른 외환관리에 어려움, 승용차의 엔진 배기량별 세금 부과체제로 인한 고급차 판매 어려움 등 지속적인 애로사항들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딜러망 확대 및 개선,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품질 우월성을 강조, 쇼룸트래픽 향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생산량이나 판매량에서 보듯 현지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나. 실패사례(분쟁사례): LG전자

LG전자의 진출사례는 실제로 터키 시장에서 LG전자 높은 인지도, 판매실적 등 지표로 따지면 거의 모든 면에서 실패사례보다는 성공사례에 가깝다.

정확히 말하자면 LG전자의 사례는 분쟁사례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설립 후 기존 판매 에이전트들과 마찰이 발생, 현재 재판까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기존 에이전트들의 제소 사유는 2002년 터키에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하던 LG전자가 2008년 법인설립 이전까지 현지 에이전트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2008년 법인설립 이후 LG전자가 이들 에이전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012년 현재 1심 재판이 에이전트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LG전자는 항소를 제기, 재심 중에 있다. 이 사건의 일방적 계약파기 여부 등 진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에이전트들과의 이러한 마찰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우리기업들 진출이 이러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비자

터키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받지 않고 영주권 제도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터키 거주는 사업, 관광, 연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관광 등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90일까지 터키에서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사업이나 근로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허가 및 입국비자를 신청 및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취득)을 위하여 주한 터키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왕복항공요금과 시간낭비 등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노동허가 신청 시에는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를 구비한 뒤 주한 터키대사관으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수령까지 약 1~2개월 정도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 거주증(이카멧)

거주허가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통상 1주일 이내에 발급 된다. 거주허가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되지만 사업체의 법적 지위, 갱신기간, 여권 유효 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미만 단위로도 발급될 수 있다.

다. 부동산 취득 및 임대

1) 개요

터키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군사시설·문화재·자연보존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을 토지의 용도나 면적에 제한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무실이나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활용해야 한다. 현지 일간지,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서도 부동산 임대정보를 찾을 수 있으나 터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보입수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영어를 구사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는 연 임차료의 12%로 관례화 되어 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통상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장기계약일 경우에는 연 단위로 임차료 인상률을 정하는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케 하고 있다.

한편, 사무실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료 이외에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세(Stopaj)를 소유주의 성격(법인소유: 가액의 18%, 개인소유: 22%)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해야 한다.

2) 주재원들의 주요 거주지

한국은 물론 대부분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스탄불의 유럽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신시가지에 속하는 에틸레르(Etiler), 울루스(Ulus), 마슬락(Maslak), 케메르(Kemer), 아타셰히르(Atasehir)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스탄불 지도 및 주요 거주지>



이들 지역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아파트 단지가 많아 치안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이 상업중심지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인들 중 부유층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가격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4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에틸레르(Etiler), 울루스(Ulus) 등의 선호지역에서 구하려면 약 2,500~3,500달러의 월 임차료 (공동 관리비 제외)가 소요된다.

라. 자동차 구입

외국인이 터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터키는 외국인에 대해 일반 터키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면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면세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나 매도 시 외국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어 매매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과세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으로 인해 다소 높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지만 현지인들과의 매매가 자유로운 이점이 있다.

한편, 신차의 경우에는 전문 딜러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웹사이트 또는 전문 딜러 등을 통하여 구입한다.

자동차 등록 절차를 외국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언어 한계 상 불가능하므로 전문 브로커를 활용하거나 경험 있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마. 자녀 교육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내에서도 있는 초-중-고등과정의 국제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며 학비도 비싼 편이다. 다만, 대학교 경우 현지대학교 중 일부(Bosphorus Univ., Bilkent University등)에서는 수업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데 비교적 저렴한 학비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스탄불 내 국제학교

학교명	위치	연락처	이수과정	학비(달러)
British Intl.(영국계)	Etiler/ Zekeriyakoy	0212-287-2264	유치원-중고등	약 25,000
IICS(미국계)	Hadimkoy	0212-857-8271	1~12학년	약 25,000
MEF Intl.(터키계)	Ortakoy	0212-287-3871	유치원-초중고	약 20,000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터키의 기후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해안의 경우 지중해성 기후, 내륙의 경우에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토가 넓어 지역에 따라 기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조금씩 차이는 있다.

터키지도



터키 최대 도시이자 우리 기업인들의 방문이 잦은 이스탄불은 터키의 북서쪽에 위치 흑해와 마르마라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어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다습하다. 특히, 11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의 우기로 흐린 날이 많고, 5~10월 초까지는 날씨가 맑고 건조한 편이며 6~8월 사이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터키 주요 도시의 평균 기온

도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탈야	10	11	13	16	20	25	28	28	25	20	15	12
이즈미르	9	10	11	16	20	25	28	27	23	18	15	10
이스탄불	5	6	7	12	16	21	23	23	20	16	12	8
트라브존	6	6	7	11	15	20	22	22	19	15	12	9
앙카라	0	1	5	11	16	20	23	23	18	13	8	2
에르주룸	-9	-7	-3	5	11	15	19	20	15	9	2	-5
디야르바크르	2	2	8	14	19	26	31	31	25	17	10	4

자료: 터키 기상청

나. 시간

1) 시차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일광절약시간제 실시로 한국과 6시간 차이가 나며, 나머지 기간은 7시간 차이가 난다. 한국시간이 빠르므로 7시간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이 오후 3시일 때 터키는 오전 8시가 된다. 세계 시간(Time Zone)으로는 GMT+2 이다.

2) 근무시간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중식시간은 통상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며 중식시간 동안에는 은행의 경우에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또한, 관공서 등 대민 기관은 오후 4시면 대부분 마감하며, 4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민원인 부담으로 특별수수료를 지급, 시간을 연장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일반식당, 상점, 백화점은 1년 연중 개점하며 통상적으로 상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점한다.

다. 도량형

터키에서 사용되는 도량형은 대부분 한국과 동일하다. 길이(m, km), 무게(g, kg) 등 대부분 비슷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전기규격이 220V로 한국과 동일하나 50Hz를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제품의 수명 단축 또는 성능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터키의 도량형

구분	단위	비고
길이	m, km 등	한국과 동일
무게	g, kg 등	한국과 동일
속도	m/h, km/h 등	한국과 동일
부피	Liter, m2 등	한국과 동일
전기규격	220V 50Hz	한국: 60 Hz (한국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명단축 및 성능 저하 가능)

라. 출입국 신고 및 세관

터키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 작성은 필요 없고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심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샘플 등은 가능한 한 출국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ATA 까르네”로 입국할 경우 신고한 샘플 등의 물품은 반입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반출되어야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면세품 보유한도

-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까지
- 와인, 위스키, 꼬냑 등: 1000 CC까지
- 향수: 120ml 5병까지
- 기타 선물용품: 상용 목적이 아닌 선물용품은 300유로까지 면세

2) 현금반입/반출

터키 내로 들어오는 외화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단, 15,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반입 및 반출 할 수 있으나, 15,000달러 이상 반입 및 반출 시에는 인출 은행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3) 기타

휴대품 통관은 Video Camera, 사냥총, 가죽 Coat 및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재반출 조건으로 통관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무기류, 마약류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출국 시 기념품 통관은 허용되나 골동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래된 자기, 카펫 등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지방박물관장이 발급 하는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마. 환전 및 소비

1) 환전

환전의 경우 공항 내 은행, 시중은행, 호텔 및 시내환전소(DOVIZ)에서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다. 공항이나 호텔 보다는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게 되나, 큰 차이는 없다. 한편, 터키 환전의 특징은 매입율과 매도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으로 미화 1달러당 약 6~7원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이 자주 찾는 식당과 상점에서는 미화 또는 유로화를 받으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도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2) 신용카드

터키에서 신용카드는 폭넓게 통용된다. 호텔은 물론이고 식당, 슈퍼마켓, 기념품 가게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출장 시 현금 과다보유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바람직하다.

단, 구멍가게, 일부 소규모 기념품 가게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 또한 백화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금결제 시 약 8%의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현금결제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

바. 교통 및 통신

1) 한국과의 항공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터키항공이 서울-이스탄불 직항을 주 14회 운항하고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출발 - 아시아나항공: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출발 - 터키항공: 매일 출발 |
|--|

그 밖에 에미레이트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케세이퍼시픽, 우즈베크항공 등도 자국을 경유하여 이스탄불과 서울을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항공편은 계절 및 고객 수요에 따라 변동이 잦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공항-시내교통

□ 공항버스(Havatas)

공항청사 출구 전면에 대기하고 있으며 출발 전에 요금 (약 8달러, 현지화로만 지불 가능)을 지불해야 한다. 공항-Taksim (신시가지의 중심지)지역은 매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공항-Akmerkez (쇼핑센터, 외국인 거주지역에 위치) 구간은 매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 택시

공항출구에 대기하고 있어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미터 요금(기본요금 1.60달러(2.7TL), 1km마다 0.90달러(1.4TL) 추가)만 지불하면 되며 심야에도 낮 시간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공항에서 Taksim(이스탄불 중심지)까지는 약 45TL (약 30달러)의 요금이 나오며, 공항에서 Levent(무역관 소재 신 상업중심지)까지는 약 40TL (약 26달러) 정도이다. 그 외에 버스, 전철, 택시 등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 국내교통

- **항공:**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안탈리아 등 거의 모든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주요항공사로는 터키항공 및 페가수스항공이 있으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경우 페가수스항공은 아타튀르크 공항이 아닌 이스탄불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사비아곡첸 공항을 주 공항으로 사용하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철도:** 이스탄불(유럽 지구)에서 불가리아, 그리스 등지로 가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운행되며, 이스탄불(아시아 지구)에서 터키 내륙을 횡단하여 시리아, 이라크, 이란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운행되고는 있으나 승객이 많지 않고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운행 빈도도 1주일에 1회 수준이다. 한편, 최근 시리아로 연결되는 노선은 터키와의 긴장관계가 길어짐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어 있다.
- **버스:** 터키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여행사 등에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고 정차역도 승차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5 TL (약 1.2 달러) 정도로 현금승차는 허용이 되지 않는 버스도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액권을 발급 받거나 1회용 승차권을 구입 하여 승차해야 한다.
- **Metro:** 터키의 지하철은 앙카라 및 이스탄불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탑승요금은 1.95 TL (약 1.2달러)이다. 지하철의 경우 과거 1개 노선, 6개 정거장으로 이용에 매우 불편하였으나, 2010년에는 10개 정거장으로 늘어나 다소 편리해졌다. 특히, 연결 구간이 탁심(Taksim)과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레벤트(Levent), 마슬락(Maslak) 구간이어서 비즈니스 출장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지하철 외에도 지상철이 있어,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구간은 지상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상철은 주요 지점에서 지하철과 연계되며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지상철의 경우, 신시가지 보다는 구 시가지에 많으며, 지하철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교통이 혼잡한 이스탄불에서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스탄불 메트로 노선도>



사. 통신

1) 국제전화

터키에서 통신요금은 세금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이스탄불-한국 간 국제통화요금은 유선전화로 걸 경우에 1분에 약 8.8 달러, 무선전화로 걸 경우에 약 44.4 달러이다. 그러나 국제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분에 약 1.4 달러(유선, 무선 발신 동일)로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국제 전화카드 등을 구입하여 하는 것이 좋다.

한편, 터키는 최근 ‘와이파이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 호텔뿐 아니라 커피숍, 식당 등 많은 곳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러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해두면 좋다.

2) 우편 (발송가격: 터키→한국기준)

□ 항공 특사우편

회사명	배송기간 (근우일 기준)	가격 (1kg 이하)	홈페이지	전화번호
DHL	3일	94 유로	www.dhl.com.tr	0212 440 00 40
UPS	3일	76 유로	www.ups.com	0212 413 22 22
FEDEX	2일	99 유로	www.fedex.com.tr	0212 444 06 06
PTS	4일	64 유로	www.pts.net	0212 444 07 87

□ 일반우편

편지	소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gr까지: 0.75 TL ○ 20-50gr까지: 1.10 TL ○ 50-100gr까지: 1.80 TL ○ 100-250gr까지: 2.40 TL ○ 250-500gr까지: 3.00 TL ○ 1000gr: 3.60 T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포 발송가격(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 kg: 55.70 TL - 1 kg 추가 시마다: 21.70 TL ○ 소포 발송가격(선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 kg: 39.00 TL - 1 kg 추가 시마다: 8.50 TL

아. 호텔 및 식당

□ 호텔

터키의 호텔 숙박요금은 높지 않은 편이나,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4성급 호텔 기준 약 30~70 달러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나, 이스탄불과 앙카라의 경우에는 약 100~200 달러에 달해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한편,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주로 머물게 되는 이스탄불 호텔요금의 경우 주요 관광지이자 상업중심지로서 수도인 앙카라보다도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문 목적에 따라서 체류호텔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관광 목적이라면 관광지인 구시가지에 위치한 저렴한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장목적의 경우에는 신시가지의 중심지인 Taksim이나 최근에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Levent, Maslak 지역에 위치한 중/고급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호텔요금은 이스탄불 신시가지(비즈니스 출장) 기준, 4성급 호텔은 100~200 달러 수준이며, 5성급의 경우에는 300~400 달러 수준이며 겨울을 제외한 성수기에는 5성급 호텔까지 전부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주요 호텔 (이스탄불)

(국가-지역번호: 90-212)

호텔명	위치	전화	팩스	비고
CEYLAN INTERCONTINENTAL	TAKSIM	231 2121	231 2132	5성급
HILTON	TAKSIM	315 6000	315 6046	5성급
MARMARA	TAKSIM	251 4696	249 7106	5성급
CONRADE INTERNATIONAL	BESIKTAS	310 2525	259 6667	5성급
ERESIN	TAKSIM	256 0803	253 2247	4성급
PRINCE	SIRKECI	513 2550	522 4359	4성급
DORINT PARK PLAZA	TAKSIM	254 5100	254 7160	4성급
FERONYA	TAKSIM	238 0901	238 0866	4성급

□ 식당

터키 전통 음식인 케밥(Kebab)은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을 재료로 구운 음식을 통칭 하며, 요리 방법 및 지방 특산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프랑스,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요리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냄새도 적어 먹기에 부담이 없어 길거리 아무식당이나 들어가도 큰 부담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바이어와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고급식당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급식당들은 주로 오르타코이(Ortakoy), 베식타스(Besiktas) 등 전망이 좋은 해안가 주변에 위치하여 있다. 한편, 좋은 좌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주요 터키식 레스토랑

식당명	위치	전화	비고
Beyti	Florya	663-2990	전통 터키식
Gelik	Bakirkoy	560-7282	전통 터키식
Kas Beyas	Florya	663-2890	육류케밥 및 해산물 전문
Le Pecheur	Tarabya	262-7070	보스포러스 해변가 생선요리
Park Fora	Ortakoy	265-5063	보스포러스 해변가 생선요리
Hacibaba	Taksim	244-1886	시내 중심가 육류케밥 전문

한편, 터키 내 한식당의 경우 대부분 이스탄불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식당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한식

식당명	위치	전화	비고
서울정	Sultan ahmet	458-0621	관광지 내 번화가에 위치
진미	Sultan ahmet	458-2008	관광지 내 번화가에 위치
가야	Taksim	238-0000	Green Park Hotel 내 위치
탁심	Taksim	254-3911	탁심 광장내 위치
참숯	Mecidiyekoy	216-4204	Profilo 거리 입구 위치

자. 관공서 관행

□ 공무원의 지위

터키의 공무원은 다른 민간부문에 비하여 보수가 지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업무에 수반되는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업무처리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모든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어 민원인의 불만과 불평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가능한 한 관공서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제반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브로커가 성행하는 것도 터키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경의 하나이다.

□ 느린 행정처리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체계로부터 파생되는 관료주의적 업무처리와 비생산적인 업무처리 방식 그리고 불투명한 제반법률로 인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민원인들은 언제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창구 단일화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고,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기로 작성 및 접수하여야 하는 점 등은 아직까지도 터키 행정업무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영어를 구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터키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반드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카. 공휴일

터키는 목, 금 또는 금, 토요일에 휴무하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유럽처럼 토, 일요일에 휴무하며 연중 2차례의 종교 연휴(이슬람력으로 12월 및 1월)가 있다.

2012년도 공휴일

일자	공휴일명	비고
1월 1일(일)	신정	
4월 23일(월)	어린이날	
5월 1일(월)	노동절	
5월 19일(토)	체육청소년의 날	
8월 19일(일)-21일(화)	라마단 바이람	종교 연휴(3.5일)
8월 30일(목)	승리의 날	
10월 25일(목)-28(일)	쿠르반 바이람 (희생절)	종교 연휴(4.5일)
10월 29일(토)	터키공화국 건국기념일	

종교 휴일의 경우, 휴일 앞, 뒤에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끼이면 통상 연속해서 휴무한다. (정부에서 휴무 1-2주 전에 공식 발표) 종교 휴일은 이슬람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10일 정도 앞으로 당겨지며, 연휴 시작일의 전날은 오전 근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즉, 라마단 바이람은 3.5일, 쿠르반 바이람은 4.5일 휴무)

따라서, 종교 휴일 전후 1주일, 여름 휴가철(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연말연시에는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한편, 라마단 바이람 종교 휴일에 앞선 1달간은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므로 일상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들처럼 공식적인 업무시간 단축은 없다.

타. 여행 및 기타

1) 여행여건

□ 치안

터키의 치안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은 수준이나, 최근 소매치기나 줌도둑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친절을 베풀 때에는 일단은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광지나 시장 주변에는 소매치기 및 호객꾼들의 호객행위 등이 많은 편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 외에 터키에는 테러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테러는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남동부지역의 쿠르드 반군 및 좌익계 게릴라 단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남동부 대치 지역에는 거의 매일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스탄불에도 종종 폭탄테러를 일으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팁 관행

터키에도 팁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호텔은 물론이고 식당 종업원, 구두닦이, 이발사, 포터 등에 게도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미화 1달러 정도를 주며 호텔 객실 팁은 1박당 통상 1-2달러 정도를 놓아두는 것이 적당하다.

음식점에서는 총 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현지화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음식 값이 비싸 팁이 부담이 된다면 현지화로 10~30리라 정도 지불하는 것도 괜찮다.

□ 식수 및 음식

터키의 수돗물은 위생문제로 인하여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식수는 반드시 마켓 등에서 구입하여 마셔야 한다. 식수는 500ml부터 9L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으며, 500ml의 약 0.5 ~ 0.7 TL 정도이며, 관광지나 일반 길에서 파는 식수의 경우에는 1~2 TL 정도를 받으므로, 마켓 등에서 미리 구입 후 가방에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물은 현지식당에서도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 쇼핑

터키에서는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이나 서비스 등 대부분의 물가수준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식품 중에서도 과일, 채소만이 한국에 비해 저렴할 뿐 육류나 생선 등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이다. 기타 지역과는 달리 특히, 이스탄불의 물가수준은 더욱 높은 편이며 외국인에게는 더욱 높은 가격을 제시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스탄불에는 최근, 현대식 대형 쇼핑몰 등이 크게 늘어있으며 이들 쇼핑몰에는 대부분 품목마다 가격이 붙어있어 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나,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유명 시장 (예: 그랜드 바자르, 이집션 바자르)에는 품목마다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에게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향이 있어, 흥정을 하는 것이 좋다. 흥정에 따라 가격을 처음 부른 가격의 절반 이하로 깎을 수 있으며, 가게 주인이 차를 내놓을 때는 부담 갖지 않고 마시면서 흥정하도록 한다.

2) 관광명소

터키는 과거 그리스, 로마문화, 기독교문화, 오스만터키 등 다양한 역사적 유적지에 천연의 지형과 기후로 인하여 여행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 이스탄불 관광명소

이스탄불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다시 유럽지역은 Golden Horn을 사이로 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어진다. Golden Horn의 남쪽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르마라해를 끼고 있는 구시가지는 과거 비잔틴시대인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수도로 지정된 이래 오스만터키가 1923년 터키공화국의 수립으로 몰락할 때까지 17세기 동안 수도로 사용되었던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번한 반란과 지진, 화재 등으로 대부분의 유적들이 파괴되고 일부만 현재 남아있는데 이스탄불의 최대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아야소피아-성소피아: Aya Sophia Museum

이스탄불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대성당이었으나 오스만제국시대에 회교사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으며 기독교의 특징인 뛰어난 성모마리아의 모자이크화 및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와 미나레트 (첨탑)등이 동거하는 기묘한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 블루모스크: Sultanahmet Camii

소피아 사원의 남쪽편에 약 2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 색 바탕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일명 블루모스크라 불리고 있다. 돔의 200개를 넘는 조그만 창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햇살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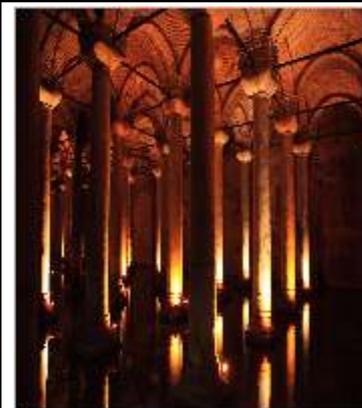
□ 톱카프 궁전: Topkapi Palace Museum

이stanbul에서 가장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며 오스만제국의 궁전으로 정복자 메흐메트 2세에 의해 건설돼 1467년에 완성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극치를 보여주는 왕궁으로 약 400년간 오스만제국 권력의 부의 중심이었다. 궁전 내부에는 술탄에게 보내온 각국의 보물과 도자기, 술탄의 식기, 의복, 장신구,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주변이 49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는 86캐럿 의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가 박힌 단검이 가장 눈에 띈다..



□ 지하 저수지: Yerebatan Saranzi

336개에 달하는 돌기둥(높이 8m)으로 지탱되고 있는 길이 140m, 폭 70m 지하 저수지로, 비잔틴 시대부터 외적의 침입 등으로 콘스탄티노플(이stanbul의 옛이름)이 포위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을 저장해놓던 곳이다. 현재는 관광객을 위하여 저수는 하지 않으나 바닥에는 계속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나무 받침대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져 신비스러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007시리즈(러시아로부터 사랑을 담고)의 촬영에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 돌마바흐체 궁전: Dolmabahce Palace

이stanbul 신시가지 쪽 보스포러스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키의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으로 19세기 구시가지가 쇠락해 감에 따라 제 2의 궁전으로 건축된 것인데 그 호화로움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사치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 되기도 한다. 이 궁전은 터키공화국의 건설자인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1938년 집무 중 사망 한 이후로는 박물관으로 개장하고 있다.



□ 루메리히사르성: Rumeli Hisari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자인 메흐멧 2세가 정복전쟁 후 불과 4개월 만에 세웠다는 성채로 보스포러스를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 갈라타타워: Galata Tower

구 시가지의 Gold Horn의 맞은편인 신시가지 쪽 언덕 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잔틴시대 때 망루로 건축된 성이다.



그 밖에도 이스탄불에는 군사 박물관, 타일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이슬람 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과 아름다운 보스포로스 해협 양안을 조망할 수 있는 크루즈 등 관광거리가 풍성하며 수백 년 간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약 3,000여 개의 상점들로 이루어진 그랜드 바자르에서 관광 겸 선물구입을 위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 기타 터키의 관광명소

□ 트로이: Troy

고대에 트로이의 목마를 사용하여 그리스군이 트로이군을 무찔렀던 이야기의 검증에 힘쓰는 바

있는 독일인 하인리히 슐리만은 1873년 이곳 트로이에서 황금팔찌와 귀걸이 등의 보물을 발견하였다. 지금은 유적이지만 남아있으며 거대한 목마가 당시를 회상하며 세워져 있다.

□ 파묵칼레: Pamukkale

터키 동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 리조트로 지하로부터 흘러나온 석회를 머금은 온천물이 구름지대를 흘러내리면서 하얀 석회봉을 형성하며 기묘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한편, 옛 로마시적 의 유적지 (극장, 교회, 성벽 등)가 널려 있고 그 중앙에는 아직도 라돔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다.

□ 에페스: Efes

에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에페스는 한때 로마의 수도로 알렉산더 시대부터 로마 기독교 시대까지 번영을 누렸던 도시다. 유적지가 많이 보존되어 있어 그리스 보다도 오히려 볼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당시의 목욕탕, 도서관, 신전 등이 아직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 카파도키아: Cappadocia

터키의 아시아 중앙부에 대자연이 오랜 세월을 걸쳐 만들어온 기묘한 공간으로 독특한 바위의 형태와 계곡의 스케일의 거대함으로 탄성을 지르게 하는 터키 최대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태고의 화산 분화에 의한 화산재와 용암 등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 눈에 의하여 침식되어 만들어진 곳이다.

□ 안탈야: Antalya

터키 남부의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휴양도시로 수많은 호텔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으로부터 바다와 태양을 배경으로 일광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붐비는 곳이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2012년 4분기/이stanbul)

시작일	종료일	전시회명	웹사이트
02-10-2012	07-10-2012	Hospitality-Hotel,Bar-Cafe And Restaurant 2012	www.euf.com.tr
04-10-2012	07-10-2012	31th International Istanbul Book Fair	www.rotaforte.com
04-10-2012	07-10-2012	22nd Istanbul Artfair/Artist 2012	www.compex.com.tr
11-10-2012	14-10-2012	Contemporary Istanbul Art Fair	www.artkim.com.tr
13-10-2012	17-10-2012	EurasiaBoatshow2012 6.Sea Vehicles, Equipments And Accessories Exhibition	www.tuyap.com.tr
13-10-2012	17-10-2012	(Medist 2012) International Medical Products, Laboratory And Hospital Equipment Exhibition	www.tuyap.com.tr
18-10-2012	21-10-2012	Broadcast,Cable & Satellite Eurasia 2012	www.cnrexpo.com
02-11-2012	11-11-2012	(Automotive 2012) 18.International Automotive Supply Industry, Components, Accessories & Service Equipments Exhibition	www.if-exhibitions.com
07-11-2012	10-11-2012	CeBIT Bilisim Eurasia	www.pozitifuarcilik.com
08-11-2012	11-11-2012	(Plast Eurasia Istanbul 2012) International Istanbul Plastics Industry Fair	www.interteks.com
17-11-2012	25-11-2012	Sign Istanbul-2012	www.tuyap.com.tr
17-11-2012	25-11-2012	Educaturk Education and Career Fair	www.tuyap.com.tr
22-11-2012	25-11-2012	(Flower Show Turkey 2012) Eurasia Plant Fair -Istanbul Ornamental Plants, Landscape and Sub-Industries Specialization Fair	www.ikonevents.com
24-11-2012	02-12-2012	(GIDA 2012) Worldfood Istanbul International Food & Beverage, Food Ingredients And Food Processing Exhibition	www.cnrexpo.com
29-11-2012	02-12-2012	(IPACK 2012) International Packaging And Food Processing Systems Exhibition	www.sinefuarcilik.com
29-11-2012	02-12-2012	(Agrotec' 2012) International Agriculture Fair	www.hf-turkey.com
29-11-2012	02-12-2012	(Green Expo 2012) Green Economy and Energy Efficiency Fair	www.if-exhibitions.com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무역 및 투자관련 기관

기관	전화(90-)	팩스(90-)	홈페이지
Undersecretariat of Foreign Trade	312-204-7500	312-212-3784	www.dtm.gov.tr
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 of Turkey	312-413-8900 212-465-6161	312-413-8901 212-465-7272	www.invest.gov.tr
Undersecretariat of Customs	312-310-3880	312-310-2214	www.gumruk.gov.tr
Export Promotion Union(IGEME)	312-417-2223	312-417-2233	www.igeme.gov.tr
EXIMBANK – Export Credit Bank of Turkey	312-417-1300	312-425-7896	www.eximbank.gov.tr

나. 금융 및 재정분야 기관

기관	전화(90-)	팩스(90-)	홈페이지
Central Bank of Republic of Turkey	312-310-3646	312-310-9115	www.tcmb.gov.tr
Istanbul Stock Exchange(IMKB)	212-298-2100	212-298-2500	www.ise.gov.tr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BDDK)	312-455-6500	312-424-0877	www.bddk.org.tr
Capital Markets Board of Turkey(CMB)	312-292-9090	312-292-9000	www.cmb.gov.tr
Turkish Derivatives Exchange	232-481-1081	232-445-6185	www.turdex.org.tr

다. 각종 협회 및 경제 단체

기관	전화(90-)	팩스(90-)	홈페이지
Union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 of Turkey(TOBB)	312-413-8000	312-418-3268	www.tobb.org.tr
Turkish Industrialists' and Businessmen's Association(TUSIAD)	212-249-1929 212-249-5448	212-293-3783	www.tusiad.org.tr
Turkish Exporters Assembly	212-454-0200	212-454-0413	www.tim.org.tr
International Investors Association(YASED)	212-272-5094	212-274-6664	www.yased.org.tr
Foreign Economic Relations Board(DEIK)	212-339-5010 212-270-4190	212-270-3784	www.deik.org.tr
The Banks Association of Turkey(TBB)	212-282-0973	212-282-0946	www.tbb.org.tr
Turkish Participation Banks' Association	216-651-9435~7	216-651-9439	www.tkbb.org.tr
Association of Turkish Travel Agencies(TURSAB)	212-259-8404	212-259-0656 212-236-3978	www.tursab.org.tr
Union of Chambers of Engineers and Architects of Turkey(TMMOB)	312-418-1275	312-417-4824	www.tmmob.org.tr
Union of Chamber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f Turkey(TURMOB)	312-232-5060	312-232-5073	www.turmob.org.tr

라. 법무 법인

 Pekin & Bayer Law Firm

주소	Ahular Sok. No. 15 Etiler, Istanbul, 34337
전화번호	+ 90 212 359 5700
웹사이트	www.pekin.com.tr
이메일	s.pekin@pekin.com.tr

 Yarsuvat Law Firm

주소	Harman Cad. No:4 Polat Plaza B Blok K:6 34394 Levent, Istanbul
전화번호	+ 90 212 325 0000
웹사이트	www.yarsuvat.com
이메일	info@yarsuvat.com

 Esin Attorney Partneship

주소	Levent Cad. Sulun Sok. No:1 Levent, Istanbul
전화번호	+90 212 376 6400
웹사이트	www.esin.av.tr

마. 회계 법인

Kapital Karden

주소	Siklamen Sokak No:1 3.Levent 34330 Istanbul
전화번호	+ 90 212 284 39 00
웹사이트	www.kapitalsmm.com
이메일	agreenhalgh@kapitalkarden.com

Pozitif M.G.I. Bagimsiz Denetim ve Danismanlik A.S.

주소	Levent Caddesi Tekirler Sokak No: 4 80700 1.Levent, Istanbul
전화번호	+ 90 212 281 29 29
웹사이트	http://pozitifdenetim.com/
이메일	iyalcin@pozitifdenetim.com

Consulta Bagimsiz Denetim ve YMM A.S.

주소	Halaskargazi Cad. No: 266 Cankaya Apt. Kat: 5 Sisli, Istanbul
전화번호	+ 90 212 347 34 00
웹사이트	http://www.consulta.com.tr/
이메일	ayasar@consulta.com.tr